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학 석사학위논문

현대 중국사회 출생성비 변화의  
가족맥락에 관한 연구

---한자녀 세대의 자녀효용가치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진선선(陳姍姍)

# 현대 중국사회 출생성비 변화의 가족맥락에 관한 연구

---한자녀 세대의 자녀효용가치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 경 숙

이 논문을 사회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진 선 선

진선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6월

위 원 장	장경섭	(인)
부 위 원 장	이재열	(인)
위 원	박경숙	(인)

## 국문초록

최근에 중국사회에서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 효과, 조치 대안 등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금후의 출생성비의 변화 추세를 논의한 연구는 보기 드물다. 2000년 이후 출생성비의 상승추세가 정지하였는데, 이는 1980년 이후 출생한 한자녀 세대가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와 맞물린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자녀효용가치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한자녀 세대의 자녀효용가치가 가족맥락 속에서 어떤 변화를 유발하는지, 이에 따라 출생성비 불균형의 주요원인으로서의 남아선호사상은 어떤 양태를 드러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중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생각의 전환을 엿볼 수 있고 중국의 출생성비는 차후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출생성비 불균형 발생의 원인과 추이, 전통가족 속에 존재하던 남아 우위의 자녀효용가치에 대해 검토했다. 출생성비 불균형의 세 가지 원인 중에 남아선호사상이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이다. 남아선호의 형성원인은 바로 전통가족 내에 남성은 높은 가계계승효용가치, 노인부양효용가치와 경제효용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효용가치 외에는 소자녀 가족이념에서의 자녀효용가치(보험효용가치, 감정효용가치, 사회평가효용가치)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 중국사회에서 한자녀 세대의 여러 가지 자녀효용가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그 다음 중국 출생성비의 시기별과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2000년 이후 부분적으로 출생성비 완화의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남아선호사상은 종족과 종교문화, 도시화수준, 농업종사자비율과 여성교육수준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아직 두드러지지 않지만 이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남아선호사상을 약화시키는 구조적인 변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변화는 1980년 이후 개혁개방 및 ‘한자녀 정책’ 아래 출생한 한자녀 세대의 등장 및 그들의 경제적, 문화적 특징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한자녀 세대가 가진 시대적 특징을 통해 그들의 가족변화와 남아선호사상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한자녀 세대를 중심으로 인터뷰조사를 통해 그들의 가족패턴, 가족의식과 자녀효용가치의 변화를 논의했다. 한자녀 세대의 가족은 핵가족과 소 자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들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되어 가족의식이 많이 약화되고 개인주의 의식이 강해졌다. 이런 가족패턴과 가족의식의 영향 밑에, 전통이념에서의 그들의 가계계승과 노인부양 효용가치와 경제효용가치는 많이 약화되어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을 뒷받침해 온 요소들도 많이 약화되었다. 또한 소자녀 가족이념에서의 한자녀 세대의 자녀효용가치의 변화도 남아선호사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생자녀 가족은 유일한 자녀를 잃을 위험성이 높아서 자녀의 가족에게 준 보험효용가치는 크게 떨어졌다. 아들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가치가 떨어지자, 딸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감정효용가치가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녀수의 감소로 인해 이제 딸이든 아들이든 모두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성 차별적 대우도 줄고 있다. 또는 이제 자녀와 부모에 대한 사회평가는 자녀의 가계계승여부에 달려 있지 않으며, 이는 자녀 개인의 발전과 성공에 대한 평가로 전이되고 있다.

가족변화와 그에 따른 한자녀 세대의 자녀효용가치 변화는 남아선호사상의 약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남아선호사상은 출생성비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의 약화는 출생성비 불균형 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사회에서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지역과 집단은 아직 많아서 이런 관념의 전환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것이 아니며, 여러 선행 과제들이 요구된다.

**주요어:** 출생성비, 남아선호사상, 한자녀 세대, 가족변화,  
자녀효용가치

**학번:** 2012-23890

## 차 례

I.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의의 .....	1
2. 연구방법 .....	3
3. 선행연구 .....	7
3.1 출생성비 불균형의 변화추이와 원인 .....	7
3.1.1 출생성비 불균형의 변화추이 .....	7
3.1.2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 .....	10
3.1.2.1 성감별 기술과 성 선택적 인공 임신중절 기술의 이용 ·	11
3.1.2.2 출산크기의 제한 .....	12
3.1.2.3 출생성비 불균형의 주요원인으로서의 남아선호사상 ·	14
3.2 남아선호사상의 형성원인으로서 가족 내의 남아우위 자녀효용가치	
.....	15
4. 자녀효용가치 변화에 대한 분석틀 .....	18
II. 중국 시기·지역별 출생성비 불균형의 특징과 변화 .....	21
1. 시기별 출생성비의 특징 .....	21
2. 지역별 출생성비의 특징 .....	26
3. 남아선호사상의 지역별 차이의 원인 .....	30
3.1 종교와 종족문화 .....	30
3.1.1 종교문화 .....	30
3.1.2 종족문화 .....	32
3.2 도시화 수준 .....	34
3.3 생산방식과 산업구조 .....	37
3.4 여성의 교육수준 .....	40
4. 1980년 이후 출생한 한자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족변화 .....	42

<b>Ⅲ. 한자녀 세대의 가족변화와 남아선호사상의 변화 .....</b>	<b>45</b>
1. 가족의 변화 .....	45
1.1 가족규모와 구조의 변화 .....	45
1.2 가족에 대한 관념의 변화 .....	48
1.2.1 소원된 가족관계로 인한 가족의식의 약화 .....	49
1.2.2 한자녀 세대의 강한 개인주의 의식 .....	53
2. 전통가족이념에서의 자녀효용가치의 변화 .....	57
2.1 가계계승효용가치의 약화 .....	57
2.1.1 전통 가부장제 아래 남성의 가계계승효용가치 .....	57
2.1.2 도시화로 인한 가계계승 의식의 약화 .....	61
2.1.3 독녀가족 가계계승 의식의 약화 .....	63
2.2 노인부양효용가치의 약화 .....	65
2.2.1 소자녀 가족 형태로 인한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	65
2.2.2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	69
3. 남녀 경제효용가치 격차의 감소 .....	75
3.1 남성결혼비용의 증가 .....	75
3.2 여성의 경제효용가치의 증가 .....	79
3.2.1 소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의 증가 .....	79
3.2.2 여성의 지위상승 .....	84
4. 소자녀 가족이념에서의 자녀효용가치의 변화 .....	91
4.1 보험효용가치 감소로 인한 가족의 불안정 .....	91
4.2 감정효용가치의 상승 .....	94
4.3 사회적 평가의 효용가치 변화 .....	98
 <b>Ⅳ. 결론 .....</b>	 <b>101</b>
 <b>참고문헌 .....</b>	 <b>104</b>
<b>Abstract .....</b>	<b>108</b>

## 표 목 차

<표1> 인터뷰 대상자의 연령대와 출산지역 .....	5
<표2> 지역별 출산정책과 출생성비 .....	13
<표3> 중국 1949-1969년 출생성비 .....	21
<표4> 중국 1970-1982년 출생성비 .....	22
<표5> 중국 1983-1999년 출생성비 .....	23
<표6> 중국 2000-2012년 출생성비 .....	24
<표7> 1990년 중국 성, 시, 구 출생성비 .....	26
<표8> 2000년 중국 성, 시, 구 출생성비 .....	27
<표9> 2010년 중국 성, 시, 구 출생성비 .....	28
<표10> 2010년 지역별 출생성비 .....	31
<표11> 2010년 지역별 출생성비와 도시화지수 .....	35
<표12> 2010년 지역별 출생성비와 농업종사자 비율 .....	38
<표13> 2010년 지역별 출생성비와 취업여성 고졸이상 교육수준 .....	41
<표14> 2010년 출생성비와 종교종족, 도시화수준, 농업종사자, 여성교육 수준의 상관관계 .....	42
<표15> 인터뷰 대상자 세대별, 연령별 출산자녀 .....	47

## 그 립 목 차

<그림1> 한국 출생성비 변화추세 .....	8
<그림2> 분석틀 1 .....	18
<그림3> 분석틀2 .....	19
<그림4> 중국1983-2009년 출생성비변화 추세 .....	25
<그림5> 지역별 출생성비 분포 .....	29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중국은 1970년대부터 가족계획정책이 실시된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져 인구성장에 대한 통제 효과를 뚜렷이 관찰할 수 있는 국가이다. 가족계획정책으로 중국 인구성장의 형태는 전통사회의 인구재생산 모형 - 높은 출생률, 높은 사망률, 낮은 인구성장률 -에서 현대사회의 인구재생산 모형 - 낮은 출생률, 낮은 사망률, 낮은 인구성장률 -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족계획정책 및 인공유산,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인해 출생인구의 성비 불균형이 커지게 되었다. 중국 출생 인구의 성비 불균형 현상은 1980년대부터 급격히 악화되었다. 2010년 11월 전국 제 6차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남녀의 출생성비는 공인된 국제 정상 수치 102~107보다 훨씬 높은 118.1을 기록하였다. 이와 관련, 초기 연구들의 논의의 초점은 ‘출생성비 불균형 현상이 과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이었는데, 현재는 출생성비 불균형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 효과, 조치 대안 등에 대한 논의로 관심이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출생성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불균형의 심각성과 향후 영향에만 주된 관심을 두었을 뿐, 이후 출생성비의 변화 추세와 불균형의 완화를 논의한 연구는 보기 드물다.

최근 중국학자들은 비슷한 경험을 가졌던 한국의 경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1962년부터 가족계획을 실시하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과 마찬가지로 출생성비가 불균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출생성비 수치는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107.7로 하락, 정상수준을 회복했다. 한국의 출생 성비 불균형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가족변화에 따른 남아선호사상의 약화는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특히 출생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남성인구 공급과잉과 가족계획정책 아래 소

자녀 가족의 형성과 자녀효용가치의 변화 등은 가족패턴에 영향을 미쳐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을 변화시켰다. 남아선호사상은 출생성비 불균형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의 약화는 출생성비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으며 전통문화에서 여러 공통점을 지닌다. 지금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출생성비 불균형 문제는 한국이 이미 겪었던 문제이고 해결해낸 문제이다. 그러나 이 두 나라에서 거의 동일한 시기에 드러난 이 문제는 그 이후의 변화 과정이 서로 다르다. 한국의 출생성비 문제는 해결된 상태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높은 불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출생성비 역시 현재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2000년 이후 상승세를 정지하여 특히 2008년 이래 최근 몇 년 동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추후 중국 출생 성비 불균형도 한국과 같이 점점 완화되어 다시 정상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만약에 불균형이 해소된다면 어떤 요인들로 인하여 해소될 것일까, 한국 출생성비 불균형의 해소요인들이 중국의 상황에도 작용할 것일까 등이 의문이 드는 것이다.

중국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남아선호사상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물론 출생성비 불균형이 남아선호사상의 영향만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는 근대화 과정에 인구통제를 위해 실시된 가족계획정책 및 성 감별, 인공유산 등 과학기술의 발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나타난 문제이다. 2003년부터 중국에서 법적으로 성감별은 불법화되었으므로 과학기술의 영향은 약화되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 자녀’ 정책도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부부 중 한 명이 독자나 독녀인 경우는 아이를 두 명 낳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조건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강하다면 출생성비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와 많은 민간단체들의 조치가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지만, 한국 가족패턴의 변화 역시 남아선호사상을 약화시켜 출생성비를 완화시킨 중요 요인이다. 중국도 개혁개방 이후의 도시화, 인구이동, 산업구조조정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가족계획정책의 실시로 가족기능과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2000년 이후 한자녀 세대가 성인기로 진입하기 시작되어 더 뚜렷한 가족변화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남아선호사상이 형성 원인으로 자녀효용가치도 변화될 수 있다고 기대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변화에 따른 자녀효용가치의 변화가 남아선호사상을 약화시켜 중국 출생성비 불균형 완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에 본 연구는 자녀효용가치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남아선호사상이 가족변화의 맥락 속에서 어떤 변화와 양태를 드러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출생성비 불균형 발생의 원인과 추이, 전통가족 속에 존재하던 남아 우위의 자녀효용가치, 그리고 최근 중국사회의 자녀효용가치의 변화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후 자녀효용가치 이론을 이용하여 중국사회와 가족의 변화에 따라 한 자녀 세대의 자녀효용가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남아선호사상과 출생성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주로 전개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미래 중국의 출생성비 불균형의 변화가 가족변화 맥락 속에서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의 80년대 한 자녀 정책 실행초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결혼 적령기에 이른 지금, 그들의 남아선호사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후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생각의 전환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차후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선 중국 6차 센서스 자료와 연감(年鑑)자료, 기존 선행연구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국 출생성비의 변화 과정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주로 시기별, 지역별로 데이터를 정리,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남아

선호사상과 관련,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어떤 사회변화와 가족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검토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자녀효용가치가 가족변화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중국의 출생성비 불균형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기에, 전체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은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통계를 활용한 양적 방법을 통해 남아선호사상의 변화를 관찰하기는 어렵기에,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남아선호와 가족패턴의 변화를 보다 세심히 관찰하고자 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별로 각 3명씩 총 12명을 선정하였다.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층 대상자를 선택한 이유는 이들이 80년대의 계획생육정책 실시 이후 태어나거나 아이를 출산한 집단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 자녀’ 정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에, 그들의 가족패턴과 남아선호사상이 이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대와 30대 대상자는 현재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중국은 매우 넓은 나라이며 지역에 따라 남아선호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자료 편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 유학생 집단은 각기 중국의 다양한 지역 출신이므로 대상자의 다양성 확보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40-50대 대상자는 재한 중국유학생의 부모나 연구자 본인의 고향(강소(江蘇)성, 해문(海門)시) 친척과 지인을 통해 확보하였다. 이렇게 남아선호사상이 비교적 여전히 심한 지역이나 완화된 지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 출신을 대상으로 확보한 결과, 사례비교나 연구결과의 편의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 <표1>는 연구 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출신 지역 등에 관한 정보들이다. 연구 대상자는 총 12명이며 남성과 여성은 각각 6명씩으로 나누었다.

<표1> 인터뷰 대상자의 연령대와 출산지역

20대	이씨(여, 산둥 제남)	30대	최씨(여, 길림 길림)
	장씨(남, 하남 상구)		양씨(남, 산둥 위해)
	오씨(여, 절강 안길)		곽씨(남, 사천 성도)
40대	비씨(여, 강소 남경)	50대	장씨(여, 강소 해문)
	유씨(남, 강소 남경)		진씨(남, 강소 해문)
	적씨(여, 상해)		왕씨(남, 북경)

본 연구는 위 12명의 연구 대상자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그들과 그들의 가족, 주변인들의 남아선호사상, 그리고 그들의 가족변화를 알아보려 하였다. 면접조사 이후에는 녹음자료를 정리하여 자녀효용가치가 가족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씨(20, 여)는 중국 산둥성 제남시의 농촌에서 출생했다. 그곳은 남아선호의 영향이 비교적 강한 편인데 이씨의 부모도 이런 영향을 받았다. 이씨에게는 오빠와 남동생이 각각 한 명 있다. 그들이 모두 대학을 다니기 위해 고향을 떠나 다른 도시로 갔다. 이씨의 형제 둘은 모두 고향과 멀리 있는 도시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씨 역시 대학 졸업 이후 현재 한국에서 유학 중이다. 이씨는 자신은 남아선호사상이 없다고 하여 이상 자녀수는 2명이라고 했다.

장씨(20대, 남)는 중국 하남성 상구시의 도시지역에서 태어났다. 그에 따르면 현재 그의 고향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 약하다고 한다. 장씨의 부모는 남아선호경향이 강해 딸이 2명이 있는 상황에서 장씨를 낳았다. 장씨는 자신이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씨(20대, 여)는 중국 절강성 안길시의 농촌에서 태어났다. 오씨의 고향은 비교적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이고 농민들이 주로 상업에 종사한다. 오씨의 부모도 지금 작은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오씨의 부모는 아들을 원하여 오씨를 낳은 후에 남동생을 한 명 더 낳았다. 오씨는 자신 스스로는 남아선호가 없다고 하며 이상 자녀수는 한 명이라고 했다.

최씨(30대, 여)는 중국 동북지역에 있는 길림성 길림시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모두 ‘지식분자’이고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편은 아니지만, 없다고도 할 수 없는 편이다. 최씨는 현재 딸이 하나 있으며 아주 만족하고 있다. 최씨는 독립성이 강하고 현재 한국에서의 학비와 생활비 모두 자신이 벌어서 쓰고 있으며, 남편의 돈은 쓰고 싶지 않다고 한다.

양씨(30대, 남)는 중국 산둥성 위해시의 농촌에서 성장하였다. 그의 부모는 예전, 생계를 위해 동북지역에서 농사를 지은 적도 있으며, 이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양씨는 형이 하나 있지만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크다. 양씨는 원래 남아를 더 좋아했지만 지금은 아이의 성별이 상관없다고 한다.

곽씨(30대, 남)는 중국 사천성 성도시에서 태어났다. 곽씨 주변은 대부분 외동 자녀들이고 남아선호의 경향도 약하다고 한다. 곽씨 역시 외아들인데, 그는 아들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딸을 더 선호하라고 한다.

비씨(40대, 여)는 중국 강소성 남경시에서 태어났다. 그에게는 아들이 한명 있고, 출산 전에도 남아가 여아보다 사회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남아를 선호했다고 한다.

유씨(40대, 남)는 중국 강소성 남통시에서 태어났는데 이후 남경시로 이주하였다. 그는 자녀 출산 당시 아이의 성별에 대한 선호가 없다고 하며, 현재 아들 한 명으로 만족스럽다고 한다.

적씨(40대, 여)는 원래 어느 농촌 출신인데 현재 남편과 같이 상해로 이주했다. 그는 딸을 두 명 낳았는데, 외동 자녀가 외로울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의 주변에도 남아선호사상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한다.

장씨(50대, 여)는 강소성 해문시에 태어나고 살아왔다. 그곳은 작은 도시였고 ‘한 자녀’ 정책을 엄격하게 실시한 지역이었다. 장씨의 주변 사람들은 보통 자녀가 한 명이다. 그 곳은 남아선호사상이 강하지 않다고 했다.

진씨(50대, 남)도 해문시에서 살고 있다. 그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 아들을 갖고 싶었으나 국가정책 때문에 아이를 더 갖지 못했

다고 한다. 현재 그는 딸만 있는 것으로도 아주 만족하고 있다.

왕씨(50대, 남)는 현재 북경시에서 살고 있지만 고향은 하남성이다. 그는 젊었을 때 아내와 같이 북경에 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첫 자녀로 아들을 낳았으며, 이후 딸을 하나 더 낳았다. 그의 주변에도 남아 선호의 경향은 별로 없다고 한다.

### 3. 선행연구

#### 3.1 출생성비 불균형의 변화추이와 발생원인

성비는 남녀 인구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며 보통 여자 100 명에 대한 남자의 수로 표시된다. 성비는 흔히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산출하나,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출생 당시의 남성과 여성의 수를 비교한 출생성비이다(권태환, 김두섭, 2013:70). 출생성비의 공인된 국제 정상범위는 102~107이다. 그리고 출생성비가 이러한 정상범위를 벗어날 때 성비는 높거나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출생성비의 불균형 정도는 5개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즉, 107~110는 낮은 수준, 110~115는 중간 낮은 수준, 115~120는 중간 높은 수준, 120~130는 높은 수준, 130 이상은 높은 수준이다.

최근 수 십 년간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는 출생성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발생원인과 변화추이를 보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Christophe Z. Guilmoto의 연구를 기반으로 출생성비 불균형의 발생원인과 변화추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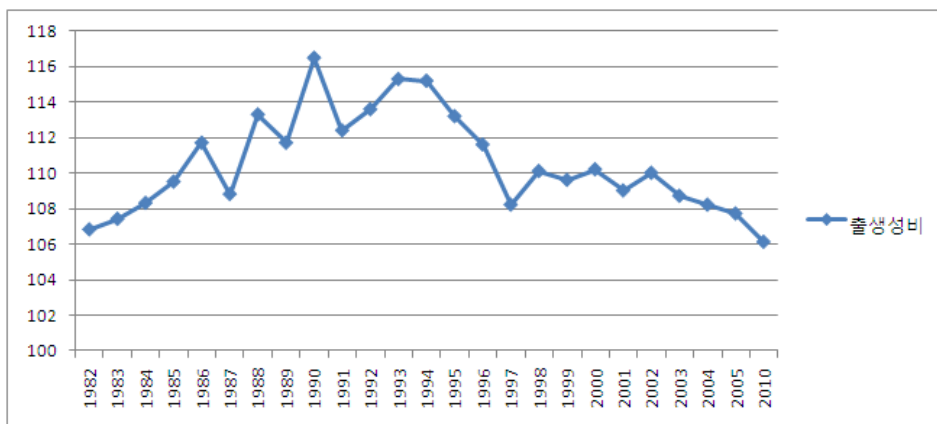
##### 3.1.1 출생성비 불균형의 변화추이

중국, 한국과 대만은 모두 1985년 이후부터 출생성비 불균형이 시작했

다. 한국은 1985년 경, 중국(대륙)은 1986년 경, 대만은 1987년 경 부터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 출생성비를 정상으로 회복한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한국의 출생성비는 1985년에 109.5를 기록하며 불균형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에 최고치 116.5를 기록하였는데, 그 후 출생성비 불균형의 상승세가 정지하였다. 1990년대 중반 부터는 뚜렷한 하락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5년에 107.7로 거의 정상수준으로 돌아갔으며 2010년에는 106.1를 기록하였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정상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Guilmoto에 따르면 한국 출생성비의 전환 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최초 출생성비 불균형은 비교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 - 3차 산업 종사자와 대학교육 받은 계층 - 중 발생하였는데, 이는 다른 집단보다 몇 년 정도 이른 것이었다. 1970년대 후기부터 이러한 선진집단들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출생성비 불균형 현상이 시작되었고, 이후 상승 추세는 급속히 안정되다가 1990년 전에 하락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반면 육체노동자와 저학력자들 중에서는 이러한 출생성비 불균형 현상이 늦게 시작되었으며, 이후 최고치를 거쳐 199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Guilmoto, 2009).

<그림1> 한국 출생성비 변화추세



자료출처: 한국통계청



Guilmoto에 따르면 여타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출생성비의 상승추세가 정지되거나 하락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출생성비 불균형이 심한 광둥, 해남, 광서 지역에서 2000-2005년 기간, 연속 감소추세가 보였다. 다른 대부분 지역도 비교적 안정된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외, 지난 몇 년 동안 대만의 출생성비도 안정된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거의 정상수준으로 돌아간다. 인도의 텔리 지역은 1990년대부터 2001년 사이, 124에 도달했으나 그 후부터는 이러한 추세가 조금씩 약화되어 2007년에 118로 하락하였다. 인도의 다른 지역도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관찰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의 출생성비도 이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출생성비 불균형은 처음에는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더 일찍 일어났으며, 농촌과 도시 간에는 4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를 보면 아제르바이잔의 소도시에서도 출생성비가 점점 감소되고 있으며 2003년의 120부터 2006년의 116로 떨어졌다(Guilmoto, 2009).

위 여러 국가의 출생성비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이 국가들의 출생성비의 상승세는 점점 둔화되거나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Guilmoto는 이 국가들의 출생성비 불균형 현상은 2010년대에 최고치에 이를 것이고 2050년 전에 11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에 의하면 비록 이 국가들의 출생성비가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현재 안정된 범위에 있으며 반전의 추세를 보이고도 있는 것이다(Guilmoto, 2009).

일부지역에서는 출생성비 불균형이 해소되거나 상승세가 정지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젠더 불평등이 점차 약화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여성의 경제적 활동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주성은 강해지고 있어 가부장체제의 토대가 파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Guilmoto는 한국의 사회구조 변화와 남성 중심적 사회 이념의 약화를 한국의 출생성비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중요 요인으로 강조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여성 교육수준의 상승도 한국과 대만

의 출생성비 완화의 요인으로 꼽힐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에서 출생성비가 먼저 감소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고학력 인구집단과 도시인구의 출생성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진보가 출생성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Guilmoto, 2009).

구조적이고 외생적인 요인 외에 인구의 내생적인 요인도 미래 출생성비 완화에 기여한다. 출생성비 불균형의 부작용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여성 부족으로 인한 남성의 ‘결혼 압박 (Marriage Squeeze)’ 문제이다. 20년 후 이 문제는 더욱 뚜렷하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성이 결혼적령기에 젊은 여성의 부족으로 결혼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라 만혼과 독신을 특징으로 한 여성의 ‘결혼도피(retreat from marriage)’ 현상도 수반되었다. 더구나 전체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줄어들음으로 인한 ‘광곤(중국에서 결혼 못한 남자를 가리키는 용어)’의 규모가 커지면서, 전통적 가부장제가 파괴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가부장제와 깊이 연관된 남성중심 의례(예: 제사), 결혼, 재산상속 등이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은 남성의 가치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결혼을 못할 수도 있는 남아를 낳은 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위험이 곧 도래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역설적인 것은 남아에 대한 강한 선호가 가부장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 결국에 출생성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Guilmoto, 2009).

### 3.1.2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

Guilmoto는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과 관련하여 세 가지 요소, 즉 성 선택 기술, 남아선호, 낮은 출산율을 들었다. 성 선택을 실현하려면 부모는 이와 관련 능력(able), 의지(willing)를 갖추고, 대비(ready)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성 선택과 관련, 분명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기술의 효력, 비용, 접근 가능성과 법적 환경은 성 선택과 관련한 조정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도덕규범과 종교규범은 부모들로 하여금 성 선택을 용인하거나

반대하게 만들기도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약 부모가 성 선택으로 얻은 이득에 대해 예상하지 않으면 이들이 성을 선택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성 선택이 허락되고 기술 능력도 있는 상황에서 견고한 남아선호가 없다면 성 선택 현상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Guilmoto, 2009).

### 3.1.2.1 성감별 기술과 성 선택적 인공 임신중절 기술의 이용

1960년대부터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근대적인 가족계획이 시작된 후 부모들이 이상가족구조를 실현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의 출산을 원하지 않아 발달한 기술을 통해 피임을 시작했다. 특히 아들이 있는 부모는 아들이 없는 부모보다 추가 출산을 더욱 피하고 싶어 하였다. 이들은 원하지 않은 출산을 막기 위해 더 효과적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반면 아들이 없는 여성은 아들을 낳기 위해 다시 출산준비를 해야 했다 (Guilmoto, 2009).

태아기의 성 선택은 1970년에 출현한 양수천자와 초음파 검사 두 가지 기술에 의존한다. 성감별 기술과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기술은 1983년부터 중국 농촌 지역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는 이후 출생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1984년)와 시기적으로 맞물린다. 따라서 과학 기술의 보급은 출생성비 불균형 문제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성 선택 기술을 사용한 이들은 도시 인구, 혹은 부유하거나 고학력인 집단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엘리트 집단들은 새로운 성 선택 기술에 관한 정보와 수단에 가장 먼저 접근하였다. 그리고 이후 몇 년 간 정보의 확산, 기술의 광범위한 보급, 초음파 검사기계 비용의 하락 등이 발생하며, 성 선택 기술은 점차 여타의 집단과 지역으로 전파되었으며 이와 함께 출생성비 수치도 급속히 상승하게 되었다(Guilmoto, 2009).

중국의 성감별 기술과 인공임신중절 기술은 바로 경제수준이 발달한 지역으로부터 후진지역으로 확장되었다. 즉 도시-진-농촌의 순위로 전파된 것이다. 남아선호의 정도는 후진지역이 선진지역에 비해, 농촌이 진에

비해, 진이 도시에 비해 심하지만, 초음파 등 기술은 우선 경제 발달 수준이 높은 도시지역부터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초기의 출생성비 불균형도 선진지역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기 선진지역은 남아 선호사상이 비교적 약한 편이어서 출생성비의 불균형 정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이후 초음파 기술 등이 남아선호사상이 심한 농촌지역에 보급되기 시작하고, 게다가 계획생육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이 한정된 출산 기회 속에서 남아선호를 추구해야 하였기에 초음파 기술은 농촌을 중심으로 크게 사용되게 되었다(마영통, 2004).

### 3.1.2.2 출산크기의 제한

출산율의 저하도 출생성비 불균형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아이의 출생 순위가 낮을수록 출생성비도 높아진다. 첫째 아이의 출생성비는 보통 정상수준에 있거나 조금만 높다. 그러나 낮은 출산율로 인해 둘째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지자, 출생 순위가 낮아짐에 따른 출생성비가 상승했다. 2005년에 중국 둘째아이의 출생성비는 140에 도달했지만 첫째 아이의 출생성비는 정상수준에 가까웠다(Guilmoto, 2009).

원하는 아이의 수가 줄어들자 부모들은 제한된 출산 크기 내에서 아들을 낳아야 했다. 만약 출산율이 높다면 출산크기가 제한되지 않기에 아들을 낳으려고 굳이 성 선택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중국은 80년대부터 ‘한 자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한계 비용(marginal cost)을 더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서 첫째아이와 둘째아이의 출생성비를 급속히 상승하게 만들었다. 중국 동부 농촌지역의 경우, 대부분 둘째 아이의 출산 가능성은 첫째 아이의 성별에 달렸다. 즉 첫째아이가 여아일 때만 둘째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성 선호는 국가의 인구정책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 규정은 중국 농촌 가족의 남아에 대한 강력한 소구로부터 기인한다. 따라서 이 규정 자체가 젠더 불평등을 생생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Guilmoto, 2009).

중국학자 주수걸(2010)도 출산정책 차이에 따라 출생성비 불균형 정도

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역별 출산정책의 차이를 제시했다. <표2>를 보면 ‘1.5명 자녀’ 정책 실시 지역의 출생성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명 자녀’정책은 첫째가 여아일 때만 추가 출산을 허락하기 때문에, 제한된 출산 기회 속에서 부모들은 남아를 간절히 원할 때 둘째를 낳게 된다. 반면에 출생성비 불균형이 비교적 약한 지역은 ‘한 자녀’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등 계획생육정책의 압력이 매우 강하거나, ‘2명 자녀 이상’ 출산정책을 실시하여 비교적 넓은 출산공간을 제공한 지역이다.

<표2> 지역별 출산정책과 출생성비

출산정책	지역	2010년 출생성비
한 자녀	북경(北京)	109.48
	천진(天津)	113.62
	상해(上海)	111.05
	강소(江蘇)	116.21
	사천(四川)	111.62
	충칭(重慶)	112.46
1.5명 자녀(농촌에 첫째 여아일 경우 둘째 낳기 허락)	호북(湖北)	124.11
	하북(河北)	118.71
	광둥(廣東)	129.49
	산시(陝西)	115.31
	절강(浙江)	118.11
	흑룡강(黑龍江)	112.36
	산둥(山東)	119.42
	산서(山西)	110.28
	길림(吉林)	111.28
	간쑤(甘肅)	117.56
	푸젠(福建)	125.64
	광서(廣西)	122.71
	강서(江西)	122.94
	안휘(安徽)	131.07
	호남(湖南)	123.23
	요녕(遼寧)	110.12
	운남(雲南)	111.91

2명 이상 자녀(농촌)	하남(河南)	127.64
	귀주(貴州)	122.48
	닝하(寧夏)	113.76
	청해(青海)	112.32
	신장(新疆)	106.02
	해남(海南)	125.48
	시짱(西藏)	106.5
	내몽골(內蒙古)	111.96

자료출처: 지역별 출산정책: 주수걸, <계획생육정책과 출생성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서북인구> 2010년 제1호 31권. 2010년 출생성비: 중국 통계청

그러나 대만, 한국과 인도 서북 지역에서는 중국처럼 엄격한 출산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는데도 출생성비가 높아졌다. 따라서 국가정책과 관계없이, 아이에 대한 성 선호가 존재하고 출산율도 감소하면 성 선택에 대한 요구는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출산율 수준과 출생성비 불균형 간에 강한 연관관계는 없다. 낮은 출산율이 성 선택에 대한 요구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다른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다.

### 3.1.2.3 출생성비 불균형의 주요원인으로서의 남아선호사상

Guilmoto는 성 선택의 원인은 아들이 딸보다 더욱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으로 설명해 주었다. 젠더 불평등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설명은 여아의 효용가치가 남아에 비해 떨어진다는 논이다. 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 및 부거제(patrilocal)의 전통을 따랐다. 결혼 후 여성에게는 시부모와 같이 살거나 가까이 지낼 것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수입은 부모에게 맡길 것이 요구되었다. 다세대 집단의 결속은 부모가 아들 가족이 벌어들이는 경제 수입과 정신적 지원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연금수당과 사회보장이 아직 미비한 지역에서 아들의 장기간 지원은 노인의 주된 수입 보장 방법이다(Guilmoto, 2009).

중국에서 남아선호사상은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한 부분이며 ‘가부장제’와도 깊이 연관된다. 유교문화 속에서 가족은 항상 개인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개인은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여겨졌다. 남자는 가

족의 혈통을 이을 수 있으며 종족의 연속을 위해 존재하였다. 중국 농촌 지역에서는 아들이 많으면 종족 내에서 가족의 힘을 강화할 수 있다. 아들의 역할은 가족과 종족을 보호하거나 제사와 장례식을 치르는 등에 있다. 딸은 시집가면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게 되고, 만남도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딸보다 아들을 키우는 게 좋은 선택이다. 아들의 출생을 축하하거나 딸의 출생을 애통해하는 관습이나 속담은 많이 있다. 또한 딸의 출생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여아에 대한 차별은 신분 및 경제적 원인과 연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는 과거 많은 여아가 살해당하거나 유기된 경우가 많았던 것이며 남아를 선호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출생성비 불균형의 세 가지 원인 중 남아선호사상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성 선택 기술은 남아선호를 실현시켜 주었다. 출생성비 불균형은 인위적 조정행위가 있을 때만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과학기술이 존재하지 않으면 남아선호사상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성비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성 선택 기술은 출생성비 불균형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남아선호사상이 없다면 성 감별 기술이 있더라도 출생성비 불균형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출생성비 불균형을 완화하려면 남아선호사상이 약화되어야 한다.

### 3.2 남아선호사상의 형성원인으로서 가족 내의 남아우위 자녀효용가치

출산행위는 인간의 출산욕구부터 나오며 출산욕구는 출산의 동기를 자극한다. 특정한 사회 환경, 커뮤니티 분위기와 가족형태의 영향을 받아, 마음속에 내재된 출산 동기는 밖으로 드러나 외재된 출산행위로 전환된다. 이는 성별의 선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성별선호 행위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출산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劉爽, 2009).

중국 학자들의 중국 농민집단의 출산욕구에 대한 분석(穆光宗, 陳俊杰,

1996)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사회 환경과 문화 속에서 중국인, 특히 중국 농민의 출산행위는 복잡한 ‘출산욕구 구조’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 출산욕구의 구조를 내부로부터 외부까지 ‘최종 가치 욕구’, ‘가계계승 욕구’, ‘감정 욕구’, ‘꿈이 이어지는 욕구’, ‘사회욕구’ 그리고 ‘경제욕구’로 나누었다.<sup>1)</sup> ‘최종 가치’의 욕구는 출산 자체의 가치이며 아이의 성별 선호와 필연적 관련은 없지만 어떤 욕구는 남성 후대의 중요성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가계계승의 욕구, 자존의 욕구, 경제욕구와 안전욕구 등은 남아선호사상의 배후에 잠재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 문화 전통 중, 출산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로 여겨졌으며 ‘경제욕구’는 오랫동안 중국 부모의 ‘다산, 조생, 남아선호’의 원동력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오랜 시간을 거쳐 이미 대중의 행동 준칙과 심층적 사회심리로 자리 잡은 것이다. 따라서 중국여성에게 아내나 어머니라는 역할은 생리, 심리부터 경제, 사회, 심지어 신앙, 가치 관념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의미한다(穆光宗, 陳俊杰, 1996).

중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남존여비”의 사상이 존재해왔다. 남자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노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가계의 계승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도 아들로 하여금 가족의 미래에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남자는 ‘장가를 드는’ 방식을 통해 가문을 잇고 부모님을 보살피 부양할 수 있게 된다. 남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계계승과 노인부양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이런 면에서 가치우위를 지닌다. 반면, 여성은 가족의 재산을 계승할 권리가 없고 남편의 부속품으로 대우받는다.

전통 농업생산방식은 보통 육체노동에 의지해야 한다. 따라서 남자가 지닌 가족 노동력의 가치가 농민의 남아선호 경향을 자극하기도 하였다.

---

1) ‘최종 가치 욕구’는 출산이 인생에 부여하는 의미를 반영하며, 인간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 주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의미한다. ‘가계계승 욕구’는 중국 가부장제 전통의 반영이며, 이는 가산의 계승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문의 연속을 의미한다. ‘감정욕구’는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행복감과 정신적 기쁨을 말한다. ‘사회욕구’는 사회적 평가, 가족의 사회적 지위로서의 욕구를 뜻한다. 가장 외부에 있는 ‘경제욕구’는 부모의 생존, 안전과 미래의 보장 등과 관련된 현실적인 욕구들이다.



남아가 가족 부양에 줄 수 있는 경제 효용가치는 여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후일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가족에게 새로운 노동력이 되어 주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남아를 낳은 것은 가족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면에도 남성 우위 경제효용가치를 엿볼 수 있다(주수걸, 2009). 농촌에서 남아를 선호하는 원인 중에는 조상과 가문을 빛내기 위함도 있다. 즉 높은 사회평가를 받아 체면유지의 필요성이다. 농민의 남아선호의 원인 중에는 경제적 효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도 포함된다. 이런 정신적 만족은 영예감, 행복감, 성취감 등이 있다(양여언, 주검,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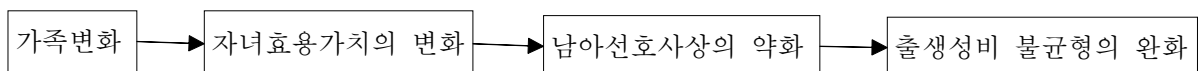
위에 말하는 남성의 가계계승, 노후대비와 경제효용가치는 모두 전통 가족이념에서의 자녀효용가치로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효용가치를 비교하여 보면 여성은 주로 ‘부모의 마음과 더 가깝고 따뜻한 존재’, ‘가족을 세심하게 보살핌’, ‘가사일 보조’ 등의 면에서 높은 효용가치를 보여주므로, 이것 역시 차별화된 남녀 효용가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내에 남자가 우위 효용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감정효용가치는 크게 드러나지 못했고 부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도파, 2012). 요컨대 가계계승, 노인부양과 농사일 등에서 남성의 효용가치가 우위에 있다. 특히 가계계승과 노인부양은 농촌에서 아들을 낳는 주요 원인이 된다.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후, 농촌에서는 가족단위 농업생산 책임제(家庭聯產承包責任制)가 실시되었다. 가족은 생산과 소비의 핵심단위로 되었고, 가족의 노동력 수준은 가족경제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되었다. 가족 생산능력은 노동력의 수, 성별과 깊이 연관되었다. 가족단위 농업생산 책임제 실시에 따라 가족의 육체노동에 대한 수요는 성별 차이를 더욱 뚜렷이 드러내어 남아에 대한 선호를 강화시켰다. 다시 말하면 중국 농촌에서는 가족을 생산단위로, 육체노동을 주요 생산방식으로 가족의 경제수입과 생활의 질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남성이 육체노동에서 뚜렷한 우세를 지니고 있었기에, 개혁개방 이후 농촌가족의 남아선호는 강화되었으며 출생성비도 급속히 상승하게 되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계획경제체제를 폐지되어 시장경제체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사영업체와 개인경제가 크게 발전되어 중국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영업체와 개인경제의 발달에 따라 가족기업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사람들은 아들로 하여금 가업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강해졌다. 중국에서 개인경제의 기반은 대부분 가족이다. 그리고 전통관념 속에 아들은 가문연속의 책임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족기업들은 남아에 대한 선호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들은 가족과 가족경제 재부의 계승자로서 가족 성망과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 있는 역할을 크게 강화하여 확대했다. 이런 경제체제의 전환과정에 전통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가 발전해도 출생성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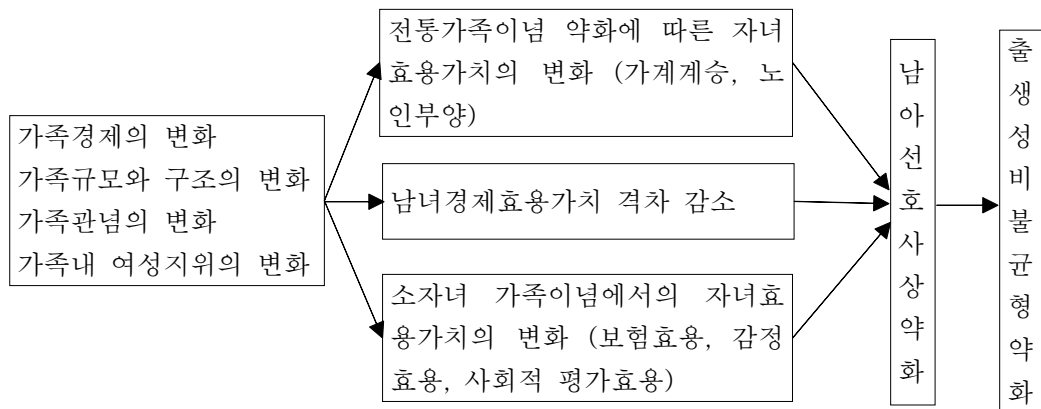
#### 4. 자녀효용가치 변화에 대한 분석틀

위의 검토를 통해 자녀효용가치는 남아선호사상의 형성원인인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변화는 남아선호사상을 약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임을 볼 수 있다. 또 남아선호사상은 출생성비 불균형의 주요원인으로, 그 변화에 따라 출생성비 불균형의 변화도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틀과 같이 최근 중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경제, 가족구조와 가족 관념의 변화상을 검토한 후,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녀효용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자녀효용가치의 변화로 인해 남아선호사상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림2>분석틀1

여기서 자녀효용가치는 가계계승효용가치, 노인부양효용가치, 경제효용가치, 보험효용가치, 감정효용가치와 사회적 평가효용가치로 나누었다(劉爽, 200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녀효용가치이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림3> 분석틀2

가계계승효용가치와 노인부양효용가치는 전통가족이념에서의 자녀효용가치로 본다. 가계계승과 노인부양은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의 주요 요인이다. 가계계승효용가치는 자녀가 가족을 연속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는 종족의 연속, 성씨의 연속, 재산의 연속 등을 의미한다. 전통 가부장제 아래에서는 남성만이 이 가치를 지니고 있다. 노인부양효용가치는 자녀가 부모의 노년에 그들을 보살피 줄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가부장제 하에서 아들은 부모 부양을 의무로 여겼으며 부모에게도 아들은 노후의 유일한 보장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통가족이념에서의 자녀효용가치가 어떻게 약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경제효용가치는 자녀가 가족에게 가져줄 수 있는 경제적 기여도와 부모의 노후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경제적 보장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 남아선호사상의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되었다. 전통 농업사회에서 남성은

가족의 유일한 노동력으로 가족에게 가져다 준 경제적 이익도 매우 컸다.

소 자녀 가족이념에서의 자녀효용가치는 중국 ‘한 자녀’ 정책 실시 이후 소 자녀 가족 내에 일어난 자녀효용가치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 중에 보험효용가치는 자녀가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가족을 안정시키는 가치를 뜻하다. 감정효용가치는 자녀가 부모에게 준 정신적 행복감과 만족감을 가리킨다. 사회적 평가효용가치는 자녀가 부모에게 준 외부사회의 평가를 의미한다.

전통이념에서의 자녀효용가치와 경제효용가치는 남아선호사상의 형성 원인으로서는 그들의 변화는 남아선호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소자녀 가족의 형성은 가족패턴을 변화시키면서 아들과 딸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있다. 따라서 새로이 형성된 소자녀 가족이념에서의 자녀효용가치는 남아선호사상의 전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해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 이런 자녀효용가치의 변화는 어떤 시점에 시작하여 어떤 집단에서 진행하고 있을까? 따라서 다음으로는 중국 출생성비 시기별, 지역별 특징과 원인을 정리하여 최근에 자녀효용가치와 남아선호사상 변화의 전환점과 이런 변화를 겪은 집단의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 Ⅱ. 중국의 시기별·지역별 출생성비 불균형의 특징과 변화

### 1. 시기별 출생성비의 특징

중국 출생성비는 시기별로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1949년 중국건국-1969년 기간이며, 제2단계는 1970년대 계획생육정책 시행 시작-1982년 기간이다. 제3단계는 1982년 ‘한 자녀’정책을 국가 기본정책으로 지정-1999년 기간이며, 제4단계는 2000년 한자녀 세대 성인기로 진입시작-2012년 기간이다. 제1,2 단계에 출생성비는 정상수준에 속하지만 제3 단계부터는 불균형하기 시작했다. 제4단계에 출생성비 비록 여전히 불균형하지만 일정한 변화의 추세를 드러냈다.

① 제1단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1970년대 계획생육정책의 시행 시작

<표3> 중국 1949-1969년 출생성비

연도	출생성비	연도	출생성비	연도	출생성비
1949	109.4	1950	104.8	1951	105.5
1952	106.5	1953	108.5	1954	108.5
1955	109.4	1956	109.7	1957	110.3
1958	110.3	1959	108.8	1960	110.3
1961	108.8	1962	106.6	1963	107.1
1964	106.6	1965	106.2	1966	112.2
1967	106.6	1968	102.5	1969	104.5
평균: 107.2					

자료출처: 탕조운(湯兆雲) <중국출생성비문제연구>, 중국언실(言實)출판사 2008년,p46-50

중국은 건국 이후부터 1970년대 계획생육정책을 시행하기 전인 22년간, 출생성비가 정상범위(102~107) 안팎에서 변동하고 있었다. 그 중 10개 연도의 출생성비는 정상치 범위에 속하고 있었는데, 11개 연도는 이미 최대범위 107을 초과했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3개 연도(1957년, 1958년, 1960년)는 110을 초과했고 1966년에는 112에 도달했다.

이 단계는 계획생육정책을 시행하기 전이었고 태아 성감별 기술과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의해 인위적인 태아 성 조정이 불가능한 시기였다. 따라서 이때 출생성비가 비교적 높은 원인은 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오랫동안 가졌던 전통이념에서 남아의 우위효용가치이다. 두 번째는 가족에게 남자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건국 초기에도 농업을 위주로 한 국가였다. 대부분의 노동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육체노동을 위한 노동력의 공급은 가족 생산의 유지와 부의 증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②제2단계: 1970년대 계획생육정책 시행시작-1982년 국가 기본정책으로 지정

<표4> 중국 1970-1982년 출생성비

연도	출생성비	연도	출생성비
1970	105.9	1977	106.7
1971	105.2	1978	105.9
1972	107.0	1979	105.8
1973	106.3	1980	107.4
1974	106.6	1981	107.1
1975	106.4	1982	108.5
1976	107.4		
평균: 106.6			

자료출처: 이건신(李建新), <중국인구 구조문제>,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09년, p.67

위 <표4>에서 볼 수 있듯, 1970년대 계획생육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여 합계출산율은 1970년의 5.8에서 1980년의 2.2로 떨어졌다. 1982년에 이 정책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정할 때까지 중국의 출생성비는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고 평균치는 106.6를 기록했다. 이 시기의 계획생육정책은 아직 출생성비 불균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성감별 기술은 198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기술적으로 성감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아를 선호해도 계획생육정책 아래 아이의 성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③제3단계 : 1982년 ‘한 자녀’ 정책을 국가 기본정책으로 지정 후-1999년

<표5> 중국 1983-1999년 출생성비

연도	출생성비	연도	출생성비
1983	107.8	1992	114.2
1984	108.5	1993	114.1
1985	114.4	1994	116.3
1986	108.5	1995	115.6
1987	110.9	1996	118.5
1988	109.5	1997	120.4
1989	112.5	1998	122.1
1990	113.7	1999	122.7
1991	113.5		
평균:114.2 표준편차:4.6			

자료출처: 탕조운(湯兆雲)<중국출생성비문제연구>

1984년부터 1999년까지 중국 인구의 출생성비는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제2단계의 출생성비 평균치는 106.6인데 제3단계에 이를 때 평균치는 114.2로 상승했다. 이 시기의 상승세를 제일 빠른 것을 보인다. 특히 1999년 출생성비는 122.7에 도달했기에 중국의 출생성비 불균형 문제는 이 시기 아주 심각한 국면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1982년 ‘한 자녀’ 정책은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정해졌다. 1980년대 이

후 도시의 ‘한 자녀’ 정책과 농촌의 ‘1.5명 자녀’ 정책<sup>2)</sup>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추가출산을 통해 아들을 얻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시기 전에 사람들은 아주 폐쇄적인 환경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 개방 초기에 사람들의 의식전환이 아직 어려운 일이고 남아선호사상은 여전히 보편적으로 존재했다. 게다가 당시는 중국 개혁개방의 시작 시기로 서구의 선진 과학 기술이 중국에 들어와 보급되기 시작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아들을 낳기 위해 융모막 검사, 양수검사, 초음파 등 방법을 이용해 태아 성감별을 하며 성 선별적 인공임신중절 기술을 통해 인위적으로 아이의 성별을 조정하기 시작하였다.

④제4단계: 2000년 ‘80후’ 한자녀 세대 성인기로 진입 시작-2012년

<표6> 중국 2000-2012년 출생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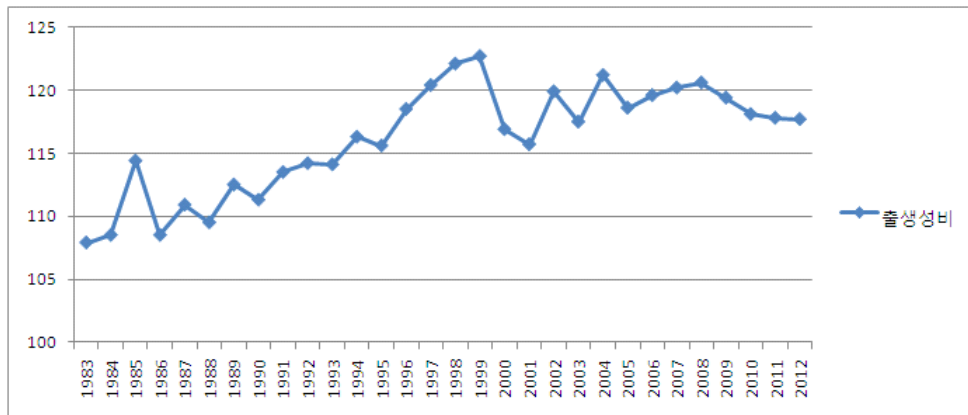
연도	출생성비	연도	출생성비
2000	116.9	2007	120.2
2001	115.7	2008	120.6
2002	119.9	2009	119.4
2003	117.5	2010	118.1
2004	121.2	2011	117.8
2005	118.6	2012	117.7
2006	119.6		
평균:118.7 표준편차:1.6			

자료출처: 2000-2007년 데이터: 탕조운(湯兆雲)<중국출생성비문제연구> ②2008년~2012년 데이터: 중국국가통계청 각연도 연감 자료.

2) 농촌지역에서는 여자아이를 한 명 낳으면 남자아이를 한 명 더 낳을 수 있다.



<그림4> 중국 1983-2009년 출생성비변화 추세



위에 <그림4>를 살펴보면 1983-1999년 사이에 출생성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2000년 이후는 상승세를 정지하여 일정 수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제3단계의 표준편차는 4.6을 기록했는데 제4단계는 1.6만 기록했다. 즉 제4단계의 출생성비는 더 안정된 범위 안에 유지하고 있다고 의미한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2008년부터 출생성비가 매년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에는 아직 120.6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2012년에는 117.7로 하락하였다. 이 시기에 출생성비의 변화는 2003년부터 중국에서 법적으로 성감별은 불법화되었다는 점과 연관된다고 본다. 정부의 이런 법적 조치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성감별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4년 간 출생성비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면 중국 출생성비가 완화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十二五’ 계획에 따르면 2015년에는 출생성비가 115로 감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2000년부터는 1980년 이후 개혁개방과 ‘한 자녀’ 정책 아래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기로 진입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중국에서의 한자녀 세대의 자녀효용가치의 변화로 인한 남아선호사상의 약화는 출생성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그리고 이는 이후 본 논문에서 검토할 주된 내용이기도 하다.

## 2. 지역별 출생성비의 특징

중국의 출생성비 불균형은 지역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 간에 심한 차이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각 성(省), 시(市), 구(區) 간에도 큰 차이가 보인다. 그리고 출생성비가 높은 지역은 연해지역부터 중서부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연해지역에서 먼저 성 선택기술을 유입되기 때문이다.

<표7> 1990년 중국 성, 시, 구 출생성비

출생성비	성,시,구 수 (단위:개)	성, 시, 구	출생아 수(단위:명)	전국출생인구에 차지한비율 (단위:%)
102 이하	1	귀주(貴州)	1,125,927	3.21
102~107	5	시짱(西藏)청해(青海)신장(新疆)상해(上海)녕하(寧夏)	1,257,799	3.58
107~110	7	흑룡강(黑龍江)운남(雲南)북경(北京)내몽골(內蒙古)길림(吉林)호북(湖北)산서(山西)	6,613,034	18.83
110~115	14	천진(天津)요녕(遼寧)호남(湖南)푸젠(福建)강서(江西)간쑤(甘肅)안휘(安徽)산시(陝西)사천(四川)광둥(廣東)하북(河北)해남(海南)강소(江蘇) 충칭(重慶)	18,323,386	52.19
115~120	4	산둥(山東)하남(河南)광서(廣西)절강(浙江)	7,790,799	22.19

자료출처: 황윤룡(黃潤龍), <중국출생성비불균형의 요인연구 및 조치의견>, 인민출판사, 2012

<표8> 2000 중국 성, 시, 구 출생성비

출생성비	성,시,구 수 (단위:개)	성, 시, 구	출생아 수(단위:명)	전국출생 인구에차 지한비율 (단위:%)
102~107	2	시짙(西藏) 신장(新疆)	337,235	2.39
107~110	5	귀주(貴州) 내몽골(內蒙古) 운남(雲南) 녕하(寧夏) 흑룡강(黑龍江)	2,081,156	14.75
110~115	12	청해(青海)북경(北京)상해(上海)길림(吉 林)산둥(山東)천진(天津)산서(山西)요녕 (遼寧)하북(河北)절강(浙江)강서(江西)간 쑤(甘肅)	4,520,717	32.03
115~120	5	충칭(重慶) 사천(四川) 강소(江蘇) 푸젠(福建) 하남(河南)	3,302,975	23.40
120~130	5	산시(陝西) 광서(廣西) 호남(湖南) 안휘(安徽) 호북(湖北)	2,804,925	19.87
130 이상	2	광둥(廣東) 해남(海南)	1,067,528	7.57

자료출처: 황윤용(黃潤龍), <중국출생성비불균형의 요인연구 및 조치의견>, 인민출판사,  
2012

위 <표7>와 <표8>를 통해 1990~2000년의 10년 간, 각 지역의 출생성비 차이와 그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위 자료는 각각 1990년 제4차 센서스 자료와 2000년 제5차 센서스 자료이다. 양 자료간의 비교를 통해 볼 수 있듯, 1990년에는 6개성이 정상범위에 있는데 이들의 출생인구 수는 전국 총 출생인구 수의 6.79%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0년의 조사에 따르면 107 이하 정상범위에 속하는 성은 시짙과 신장 2개 소수민족자치구 뿐이다. 이 2개성의 출생인구 수는 전국의 2.39%를 차지한다. 1990년에는 전국의 1/3의 성의 출생성비가 107~110사이에 있었는데 2000년에는 5개 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 성이 출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83%부터 14.75%까지 떨어졌다. 1990년에 110~120 범위에 속하는 성은 18개 있고 2000년에도 17개 있지만 출생아 점유비는 74.38%에서 55.43%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2000년에 출생성비가 120을 넘는 성은 7개나 있으며, 이 7개성의 출생아 수가 전국에 차지하는 비율은 27.44%에 도달한다. 그

중 5개성의 출생성비는 120~130 범위에 있어서 불균형 정도가 높다. 특히 광둥성과 해남성의 출생성비가 130을 넘었고 불균형 정도는 매우 심각한 편이었다. 따라서 90년대 이후 출생성비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는 지역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표9> 2010년 중국 성, 시, 구 출생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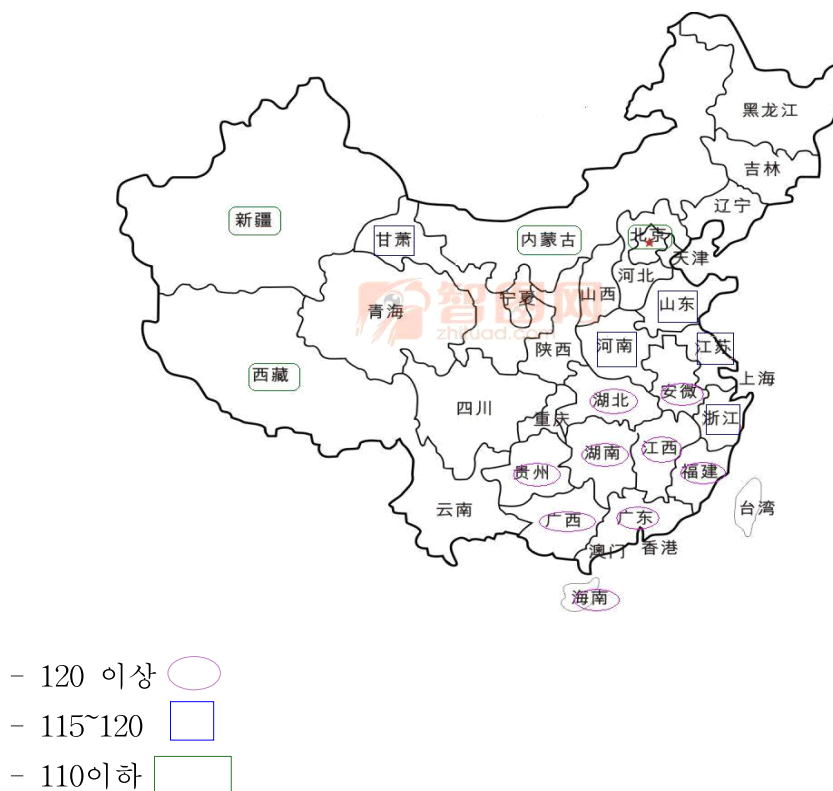
출생성비	성,시,구 수 (단위:개)	성, 시, 구	출생아 수 (단위:명)	전국출생인구에 차지 한비율 (단위:%)
102~107	2	시짙(西藏) 신장(新疆)	30,258	2.65
107~110	2	내몽골(内蒙古) 북경(北京)	19,928	2.32
110~115	12	흑룡강(黑龍江)천진(天津)닝하(寧夏)충칭(重慶)운남(雲南)산서(山西)사천(四川)요녕(遼寧)청해(青海)길림(吉林)상해(上海)	252,344	27.8
115~120	6	하북(河北)절강(浙江)산시(陝西)강소(江蘇)간쑤(甘肅)산둥(山東)	168,178	13.5
120~130	8	광둥(廣東)해남(海南)강서(江西)하남(河南)귀주(貴州)호남(湖南)푸젠(福建)호북(湖北)광서(廣西)	663,654	34.5
130 이상	1	안휘(安徽)	55,698	5.42

자료출처: 중국 국가통계청 제6차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한다.

위의 <표9>는 2010년 제6차 센서스 조사의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102~107 정상범위에 있는 지역은 여전히 시짙과 신장 밖에 없다. 전체 출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과 비슷하다. 107~110 범위에 속하는 지역은 5개에서 2개(내몽골, 북경)로 줄어들었다. 이 범위의 출생인구 수는 14.75%에서 2.32%로 떨어졌다. 110~120 수준에서 유지되는 지역 수는 2000년보다 1개를 증가했는데 출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13%를 감소했다. 이는 1990-2000년 사이에 이 수준에 있는 출생인구가 18.59%를 감소한 것보다 4%를 줄어들었다. 그리고 120~130에 있는 지역의 수로 2000년의 7개로부터 9개로 늘어났는데 전국 출생인구에 차

지한 비율은 12.48%를 증가했다. 그러나 1990-2000년 상이에 이 수준에 있는 지역의 출생인구의 점유비는 27.44%를 증가한 것보다 약 15%를 감소했다. 그리고 2000년에 130을 넘는 광둥성과 해남성은 130 이하로 돌아갔으나 안휘성이 130을 넘었다. 이 범위에 있는 출생아 점유비는 7.57%부터 5.42%로 줄어들었다.

아래의 출생성비 분포 지도를 통해 출생성비 불균형이 심한 성은 주로 화동(산둥, 강소, 안휘, 절강, 푸젠), 화남(광둥, 광서, 해남), 화중(호북, 호남, 하남, 강서)지역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화남지역은 불균형 정도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며 다른 지역은 비교적 불균형 정도가 조금 낮은 편으로 보인다.



<그림5> 지역별 출생성비 분포

### 3. 남아선호사상의 지역별 차이의 원인

출생성비 불균형 현상이 이렇듯 지역별 차이가 심한 것은 지역별 출산 정책의 영향도 있지만 각 지역별로 남아선호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지역별 남아선호의 차이는 여러 사회경제, 문화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이에 따라 자녀의 효용가치 및 남아선호경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종족과 종교, 도시화 수준, 농업취업 구조 및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 남아선호사상에 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 3.1 종교와 종족문화

##### 3.1.1 종교문화

현재 중국에서 출생성비가 지속적으로 정상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신장과 시짱 뿐이다. 이 두 지역은 모두 소수민족자치구이며 자신만의 종교를 지니고 있다. 그 밖에 내몽골자치구, 녕하자치구, 청해성(43개 소수민족과 6개 소수민족자치주 소유), 운남성(8개 소수민족자치주 소유), 사천성(3개 소수민족자치주 소유) 등 소수민족 집거지역들도 비교적 낮은 출생성비를 드러내었다. 이 지역들은 유교문화와 다른 민족문화를 지니는데, 특히 신장과 시짱 지역은 이 지역 종교의 영향으로 남아선호경향이 없어 출생성비가 지속적으로 정상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신장은 주로 이슬람 문화의 영향이 컸으며, 시짱은 불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다.

<표10> 2010년 지역별 출생성비

성, 시		출생성비	성, 시		출생성비
출 생 성 비 (120 이상)	안휘	131.0	출 생 성 비 (110-115)	하북	114.9
	푸젠※	125.6		닝하◆	113.8
	해남※	125.5		천진	113.6
	호북	124.1		충칭	112.5
	호남	123.2		흑룡강◎	112.4
	광서※	122.7		칭해◆	112.3
	강서※	122.9		운남◆	111.9
	귀주	122.5		사천◆	111.6
	광둥※	120.4		길림◎	111.1
출생 성비 (115-120)	산둥	119.4		상해	111.0
	절강	118.1		산서	110.3
	하남	117.8		요령◎	110.1
	간쑤	117.6	출 생 성 비 (110 이하)	북경	109.5
	강소	116.2		내몽골◆	108.8
	산시	115.3		시짱◆	106.5
				신장◆	106.0

※객가인 거주지역◆소수민족 집거지역◎동북삼성 출처:통계청<2010년 중국통계연감>

1953년 신장의 출생성비는 114.14였지만 1982년에 이르러 106.05로 떨어졌다. 2000년에 106.12였는데 50년 전 보다 8% 감소한 수치이다. 신장은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이고, 민족의 종류가 다양하며, 소수민족들이 차지한 비중도 큰 동시에 종교와 신앙도 복잡하다. 신장의 이슬람교 문화, 풍습은 유교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남아선호에 대해서도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인다 (구양정, 2006). 꾸란<sup>3)</sup>에는 남녀가 인간적으로 평등하다는 구절이 많으며 남녀의 공동창조를 명시하고 있다. 즉 신이 남성과 그 배우자를 모두 한 영혼으로부터 공동 창조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꾸란은 여성과 남성이 모든 기본적 권리와 의미에서 동등하며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한 보상과 처벌에서도 동등하다고 언급하고 있다(조희선, 2005). 특히

3) 이슬람교의 경전(經典)으로,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610년 아라비아 반도 메카 근교의 히라(Hira) 산 동굴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처음으로 유일신 알라의 계시를 받은 뒤부터 632년 죽을 때까지 받은 계시를 집대성한 것이다.

이슬람교의 생육관념에서 생명은 알라가 부여한 것이고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것이다(조희선, 2005). 따라서 여아를 경시하면 안 되며, 태아가 여아라도 낙태를 할 수 없다. 신장의 독특한 민족문화, 풍속 등은 신장의 출생성비가 정상치를 유지하는 데에 견고한 바탕이 되었을 수 있다.

### 3.1.2 종족문화

2010년 출생성비를 보면 전국 31개 성,시 중에 평균수준 118.1이상 기록한 지역은 10개가 있다. 이는 이 10개 지역의 출생성비가 전국 출생성비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10개 지역 중에는 5개(푸젠, 해남, 광서, 강서, 광둥)가 종족의식이 매우 강한 객가인 거주 지역이고 모두 출생성비 120을 넘었다.

객가인은 한족의 한 지계로서 뚜렷한 객성을 지니고 아주 특별한 존재이다. 그 집단에서는 자녀가 가계계승과 노인부양에 있어서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객가인은 원래 중국 하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지역’에 살았으나, 서진(西晉) 때부터 전란을 피해 지금의 광둥성, 푸젠성, 광서성, 장서성, 해남성 등지의 산간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객가인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정의식이 특별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객가인은 자신을 ‘중원(中原)토족(土族), 삼대(三代)유민(遺民)’라고 자칭하며 자기가 고대한족의 적계자손으로 여겨왔다. 강한 종족적인 결합은 그들로 하여금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풍습을 유지하게 하였다. 특히 산속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폐쇄적인 환경 속에 새로운 문화의식을 접촉하기 어려웠다.

객가인은 ‘충(忠), 효(孝), 절(節), 의(義)’라는 유교사상을 준수해야 하는 미덕으로 생각한다. 특히 객가인 가족은 여러 세대가 같이 살아야 하는 가족제도가 강하게 유지되는데, 이는 ‘효’를 중시하는 것과 밀접히 연관된다. 예전에 힘든 이주과정에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형제자매처럼 우애하는 관계를 형성했다. 이런 강한 응집력은 그들로 하여금 가족을 더 중요시하게 하여 가족들이 같이 살아야 하는 전통도 발전시켰다. 한



편으로는 객가인은 가족은 삶의 중심이고 가족 구성원마다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해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행위규범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여자는 시집을 가면 대부분 직계가족 형태를 유지하여 시댁의 노인과 동생을 부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노인은 한 가족에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존중 받는다. 그러므로 객가인 가족에 가장이 있으면 자손이 많이 있어도 분가(分家)는 하지 않는다. 만약에 집이 부족하면 자기의 주택 범위 안에 새로운 집을 지어서 산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객가인에게만 있는 ‘큰 가옥’ 혹은 ‘웨이룽우(圍龍屋)<sup>4)</sup>에서 집단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가족제도 아래 객가인은 ‘효’를 근본으로 삼아 조상을 매우 존경한다. 그들이 가문의 연속을 상징하는 족보와 제사행사를 상당히 중시하여 어디에 가서 정착하더라도 여전히 제사를 지내야 하고 사당(祠堂), 묘지, 족보 등을 다시 보완하거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명절에 한 ‘성씨’의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 그리고 ‘성씨’마다 족보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 보완 중이다. 이런 강한 종족의식은 가족의 연속을 중시하여, 가족 내에서 남성우위의 가계 계승과 노인부양효용가치를 강조하므로, 자연스럽게 남아를 선호하게 된다(서걸수, 1999).

또한, 객가인은 중국 고대의 중농경상(重農輕商)의 전통을 계승했다. 즉 농업을 중시하는 반면에 상업을 경시하는 전통이다. 그들이 어디로 이주하면 거기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다. 따라서 농업은 그들의 경제수익의 주요원천이다. 이런 농업을 중시하는 전통 아래 객가인은 오랫동안 자급자족(自給自足)의 가족경제구조를 유지해왔다. 지금은 사회발전에 따라 이런 중농경상의 관념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객가인 가족에는 여성은 여전히 주로 가정일만 하고 남성은 밖으로 나가 생계를 도모한다. 따라서 남성의 경제효용가치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걸수, 1999).

---

4) 객가인들이 거주하는 가옥 중 하나이다. 웨이룽우는 거대한 원형 가옥이고 예전에 외부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건축했다.

한편, 종족의식이 비교적 약한 인구집단은 이동성이 강한 특징을 보인다. 동북지역(요녕, 길림, 흑룡강)도 상대적으로 출생성비가 낮은 지역이며 모두 113-110 사이에 있다. 이는 이동성이 높았던 동북지역의 역사와 관련 된다. 현재 중국의 동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나라 때부터 전쟁이나 기근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들이다. 이 지역의 촌락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이질적인 특성이 강하다. 이에, 동일한 규범과 질서가 형성되기 힘들었던 것이다. 이 지역은 종족의 관념이 약하기 때문에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는 의식도 약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북지역의 출생성비가 비교적 낮은 이유는, 주민들 대부분이 청나라 말기에 타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일 수 있다. 그로 인해 종족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가계계승의식도 그다지 강하지 않아, 남아의 가계계승효용가치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일 수 있다(공위강, 2013).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 종교든 종족이든 문화는 남아선호사상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문화의 차이는 전통이념에서의 자녀의 가계계승, 노인부양효용가치의 차이를 만들어 남아선호의 차이를 만들었을 수 있다. 유교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종족의식이 강한 집단들에게 노인에 대한 효도와 가문의 연속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남자는 가계계승효용가치와 노인부양효용가치에서 뚜렷한 우세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집단에서 남아선호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 3.2 도시화 수준

지역별 남아선호의 차이에는 문화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아래 <표11>를 통해 살펴보면, 각 성, 시의 도시화 지수의 정도는 출생성비 불균형 정도와 뚜렷한 인과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11> 2010년 지역별 출생성비와 도시화지수

성, 시		출생성비	도시화지수 (단위: %)	성, 시		출생성비	도시화지수 (단위: %)
출 생 성 비 (120 이상)	안휘	131.0	42.1	출 생 성 비 (110 -115 이하)	하북	114.9	43.0
	푸젠※	125.6	51.4		녕하◆	113.8	46.1
	해남※	125.5	49.1		천진	113.6	78.0
	호북	124.1	46.0		충칭	112.5	51.6
	호남	123.2	43.2		흑룡강◎	112.4	55.5
	광서※	122.7	39.2		청해◆	112.3	41.9
	강서※	122.9	43.2		운남◆	111.9	34.0
	귀주	122.5	29.9		사천◆	111.6	38.7
	광둥※	120.4	63.4		길림◎	111.1	53.3
출생 성비( 115- 120)	산둥	119.4	48.3		상해	111.0	88.6
	절강	118.1	57.9		산서	110.3	46.0
	하남	117.8	37.7		요령◎	110.1	60.3
	간쑤	117.6	32.6	출 생 성 비 (110 이하)	북경	109.5	85.0
	강소	116.2	55.6		내몽골◆	108.8	53.4
	산시	115.3	43.5		시짱◆	106.5	23.8
					신장◆	106.0	39.9
전국 도시화지수: 46.6							

※객가인 거주지역 ◆소수민족 집거지역 ◎동북삼성 출처: 통계청<2010년 중국통계연감>

출생성비가 120 이상인 지역들의 경우, 광둥성, 푸젠성과 해남성을 제외하면 도시화수준이 모두 전국수준 46.6보다 낮다. 앞서 검토한 것처럼 이 세 개 성은 객가인들이 집거한 지역들로, 그들의 강한 종족의식으로 인해 남아선호사상이 강하다. 출생성비가 115-120사이의 지역인 경우, 하남성, 간쑤성과 산시성의 도시화정도는 모두 전국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출생성비 115 이하 지역들 중 소수민족 집거지역들을 빼면 도시화수준은 거의 모두 전국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북경과 상해의 도시화 지수는 각각 85과 88.6를 기록하여 출생성비도 정상수준과 가까운 범위에 있다. 그러나 출생성비가 높을수록 도시화수준이 반드시 낮은 것으

로 나타나지 않아서 둘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추론하지 어렵다.

1996년의 중국 도시화 수준은 29.4%에 머물렀으나, 2011년에는 49.68%에 도달하였다. 즉 15년 동안 20% 증가한 것이다. 2012년에는 처음으로 50%를 초과하여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 2013년 도시화 수준은 53.73%까지 상승하였다. 도시화 수준이 계속 높아지면 도시문화의 영향도 커지며 자녀효용가치에 대한 의식도 전환될 기회가 증가할 수 있다. 도시화 수준의 상승은 도시인구의 증가와 농촌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농업을 위주로 했던 생산방식이 공업과 제3차 산업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도시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환경에서 새로운 관념과 문화를 형성해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자녀효용가치 변화에 따라 남녀에 대한 차별인식도 약화되어, 남아선호 경향도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화에 따라 인구의 유동도 활발해진다. 석인병과 웅파(2011)는 농민의 유동경험유무가 농민의 남아선호경향에 준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유동경험은 농민의 남아선호경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에서는 유동성이 강해 종족의식이 유지되기 어려워 남아선호경향이 많이 약화되었고, 많은 이들이 성 선호가 없거나 심지어 여아를 선호하게 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 도시주민의 출산관념과 새로운 사회경제환경이 농민의 출산관념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재사회화하고 원래 가졌던 출산관념을 흔들어, 남아선호사상을 어느 정도 약화시키는 것이다.

최근에 1980년 이후 출생한 신세대 농민공은 1세대 농민공과 다른 삶의 양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3년에 신세대 농민공은 총 12,528만 명이 있고 농민공 총수의 46.6%를 차지한다. 그리고 1980년 이후 출생한 이들은 농촌 노동력의 65.5%를 차지한다. 신세대 농민공의 여러 가지 특징은 남아선호경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세대 농민공의 출산관념은 보통 ‘조혼(早婚)조육(早育)’, ‘남아선호’, ‘다자(多子)다복(多福)’, ‘가계계승’, ‘노후대비’ 등이었다. 그러나 지금 신세대 농민공은 ‘만혼(晩婚)만육(晩育)’, ‘한 아이만 낳기’, ‘아들 딸 차별 없이’ 등의 관념을 가지

고 있으며 자녀교육을 매우 중시한다. 이들은 구세대 농민공보다 더 어린 나이에 도시로 이주하였고 도시문화의 영향을 더 쉽게 받았으며, 이에 의식의 전환도 더욱 빨리 겪을 수 있다.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있어서, 기술에 대한 적응과 개인의 소양 등도 구세대보다 나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세대 농민공의 개인소비가 증가되면서 가족을 위한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것은 이들이 도시문화의 영향을 받아 개인주의 의식이 강화되며 가족의식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화는 그들의 성 평등의식과 출산관념을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도시화는 그들의 거주지와 직업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농촌문명을 도시문명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들의 의식도 변화시킬 수 있다. 신세대 농민공은 노동방식, 생활방식, 소비방식과 여가활동에서부터 차츰차츰 도시문명을 받아들이며, 심리나 행동 면에서 도시인과의 거리를 좁히게 된다. 동시에 신세대 농민공들은 도시시민과 거리감을 줄이고 싶은 의지가 강하며 쉽게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습관을 받아들이고, 이와 동시에 부지불식간 출산관념과 행위에서도 질적 변화를 겪게 된다.

### 3.3 생산방식과 산업구조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의 출생성비는 농촌지역보다 낮으며, 농업발달 지역의 출생성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아래 지역별 농업종사자의 비율을 보면 2010년 중국 전국 농업 종사자의 비율은 38.1%를 기록하였다. 이중 출생성비 120 이상인 지역을 보면 푸젠성, 광둥성, 호북성을 제외하고는 농업종사자 비율이 전국수준보다 높았다. 출생성비 115-120 사이에 있는 지역 중에서는 하남성, 간쑤성과 산시성의 농업 종사자는 모두 40%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간쑤성은 심지어 50%를 넘었다. 산둥성은 농업비중이 36.6%를 기록하였는데 출생성비는 전국 수준보다 약간 낮은 정도이다. 강소성과 절강성의 출생성비도 115를 초과하였으나 농업종사자는 각각 19.8%와 17.2%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절강성에는 민영업체들이

많고 특히 가족사업체들이 많은데, 이들 업체들은 아들이 가족의 사업을 계승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남아선호의 경향이 강한 것으로 추측된다. 출생성비 115이하의 지역 중에 소수민족 집거지역과 동북지역을 제외하면 농업종사자 비율은 대부분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상해, 북경, 천진 세 도시의 농업종사자비율은 가장 낮으며 이들 지역의 출생성비도 비교적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업종사자가 많으면 출생성비가 반드시 높은 게 아니어서 두 변수 사이에도 뚜렷한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못 했다.

<표12> 2010년 지역별 출생성비와 농업종사자 비율

성, 시		출생성비	농업종사자 (단위 %)	성, 시		출생성비	농업종사자 (단위 %)	
출 생 성 비 (120 이상)	안휘	131.0	42.8	출 생 성 비 (110 -115)	하북	114.9	38.0	
	푸젠※	125.6	29.4		닝하◆	113.8	39.8	
	해남※	125.5	52.4		천진	113.6	15.3	
	호북	124.1	32.7		충칭	112.5	34.9	
	호남	123.2	48.0		흑룡강◎	112.4	46.3	
	광서※	122.7	54.5		청해◆	112.3	42.9	
	강서※	122.9	39.3		운남◆	111.9	61.3	
	귀주	122.5	51.7		사천◆	111.6	43.6	
	광둥※	120.4	27.2		길림◎	111.1	43.6	
출생 성비( 115- 120)	산둥	119.4	36.6		출 생 성 비 (110 이하)	상해	111.0	5.1
	절강	118.1	17.2			산서	110.3	39.7
	하남	117.8	46.5			요령◎	110.1	31.7
	간쑤	117.6	52.6	북경		109.5	5.2	
	강소	116.2	19.8	내몽골◆		108.8	48.8	
	산시	115.3	45.7	시짱◆		106.5	54.5	
				신장◆		106.0	51.3	
전국 농업종사자 비율: 38.1								

※객가인 거주지역 ◆소수민족 집거지역◎동북삼성 출처: 통계청<2010년 중국통계연감>

농업종사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농업을 가족의 경제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생산방식은 농민으로 하여금 남아를 선호하게 하는 경제적 원인이 된다. 농촌은 아직까지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기에, 노인의 노후 생활은 여전히 아들에 의지해야 하며 가족경제도 주로 남성에 의지하고 있다. 농업생산을 위해 남성의 노동력이 필요하며 가족부양도 남성의 책임으로 여겨진다. 남자는 가족의 기둥이고 계승자이기에 가족 내에서 남성의 지위는 여성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들의 노인부양효용가치와 경제효용가치는 딸에 비하면 강한 우세를 지니며 남아가 선호된다. 또한 농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긴밀한 연대관계를 존재하여,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와 시선도 크게 의식한다. 농촌에서는 아들을 낳은 것은 체면치레로 생각하여, 남에게 뒤처지지 않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남아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에게는 사회적 평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북경과 상해처럼 출생성비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는 도시화 정도가 매우 높거나 제3차 산업이 아주 발달한 지역들이다. 북경의 농업비율은 0.8%인데 제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76.5%이다. 상해의 제3차 산업 비율도 62.2%를 도달했다. 최근의 전국 산업구조 비율을 보면 제1차 산업의 비중은 계속 감소되고 있다. 제2차 산업은 2007년에 최고치 49.2%로 상승하였는데, 그 후에는 조금씩 감소하다가 정체되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다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43.9%로 하락하였다. 제3차 산업의 비중은 2008년 전 몇 년 동안 감소했지만 2008년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제3차 산업의 비중은 처음으로 제2차 산업을 초과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게 된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자의 노동방식에 대한 요구도 변화시켜, 단순 육체노동으로부터 정신노동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에 가족 내에 남성이 생산노동에서 가진 절대적 우세가 깨졌으며, 여성의 취업과 경제적 독립에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된 것이다. 사회경제적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은 농업이 요구한 전통적인 육체노동 생산방식을 바꾸었고, 제3차 산업의 발전은 남녀분업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였다. 그러므로 남녀

의 경제효용가치의 차이가 줄어들어 남아의 우세는 약화될 수 있으며 남아에 대한 선호경향도 바뀔 것이라 예상된다.

### 3.4 여성의 교육수준

남아선호사상은 근본적으로 젠더 불평등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위는 남아선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래 지역별 취업여성의 교육수준(고졸이상 비율)을 보면 2010년 전국수준은 21.44%를 기록했다. 이 중 출생성비 120이상인 지역은 광동성과 푸젠성을 제외하면 고졸이상 교육수준이 모두 전국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안휘성, 광서성, 강서성과 귀주성은 고졸이상 교육수준이 각각 13.46%, 16.05%, 15.74%, 11.1%을 기록하여 전국수준과 큰 차이를 보인다. 출생성비 115-120 사이에 있는 성 중 산둥성, 하남성과 간쑤성은 각각 고졸이상 교육수준이 19.43%, 16.94%, 15.17%을 기록하여 이 지역의 취업여성들은 비교적 낮은 교육수준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절강성, 강소성과 산시성은 출생성비 115를 초과했지만 취업여성의 교육수준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출생성비 115 이하 성, 시 지역은 소수민족 집거지역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서 취업여성의 고졸이상 비율이 20% 이상을 기록하였다. 소수민족 집거지역 중 념하, 내몽골과 신장은 모두 평균수준을 넘는다. 그렇지만 취업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생성비 낮아진 것이 아니다. 출생성비 불균형의 정도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만 뚜렷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표13> 2010년 지역별 출생성비와 취업여성 고졸이상 교육수준

성, 시		출생성비	고졸이상 교육수준 (단위 %)	성, 시		출생성비	고졸이상 교육수준 (단위 %)
출 생 성 비 (120 이상)	안휘	131.0	13.46	출 생 성 비 (110 - 115)	하북	114.9	18.87
	푸젠※	125.6	21.75		닝하◆	113.8	23.02
	해남※	125.5	19.18		천진	113.6	45.89
	호북	124.1	20.49		충칭	112.5	20.68
	호남	123.2	21.16		흑룡강◎	112.4	24.57
	광서※	122.7	16.05		청해◆	112.3	19.78
	강서※	122.9	15.74		운남◆	111.9	12.33
	귀주	122.5	11.10		사천◆	111.6	14.77
	광둥※	120.4	26.63		길림◎	111.1	25.03
출생 성비( 115- 120)	산둥	119.4	19.43		출 생 성 비 (110 이 하)	상해	111.0
	절강	118.1	25.44	산서		110.3	26.25
	하남	117.8	16.94	요령◎		110.1	27.68
	간쑤	117.6	15.17	북경		109.5	64.58
	강소	116.2	24.67	내몽골◆		108.8	26.18
	산시	115.3	22.74	시짱◆		106.5	10.13
				신장◆		106.0	25.64
전국 취업여성교육수준(고졸이상): 21.44							

※객가인 거주지역◆소수민족 집거지역◎동북삼성 출처:<2010년중국인구와취업통계연감>

위에서 살펴본 지역별 출생성비, 도시화수준, 농업종사자비율, 여성교육수준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아래의 <표14>를 보면 지역별 출생성비가 도시화수준, 농업종사자, 여성교육수준과의 상관계수는 각각 -0.168, 0.051, 0.352를 기록했는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수준에 있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객가인종족과 종교와 상관관계를 보면 각각 0.519, 0.526을 기록하여 모두 유의미의 범위에 속해 있다. 따라서 모든 변수들 중에 지역별 종족문화와 종교문화의 특성은 출생성비의 차이와 유의미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표14> 2010년 출생성비와 종교종족, 도시화수준, 농업종사자, 여성교육수준의 상관관계

변수	종족(객가인)	종교	도시화수준	농업종사자	취업여성교육수준(고졸이상)
출생성비의 상관관계	0.519**	0.529**	-0.168	0.051	-0.352

\*\* .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4. 1980년 이후 출생한 한자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족변화

2000년 이후 부분적으로 출생성비 완화의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남아선호사상은 종족과 종교문화, 도시화수준, 농업종사자비율과 여성교육수준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아직 두드러지지 않지만 이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남아선호사상을 약화시키는 구조적인 변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변화는 1980년 이후 개혁개방 및 ‘한자녀 정책’ 아래 출생한 한자녀 세대의 등장 및 그들의 경제적, 문화적 특징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자녀 세대가 가진 시대적 특징을 통해 그들의 가족변화와 남아선호사상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한자녀 세대는 중국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 자라나는 세대이며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급격한 사회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들이 보낸 20년 성장기는 중국에서 경제발전이 제일 빠른 시기였고 사회구조의 전환도 급격하여 과학기술의 발전도 신속하였다. 특히 그때 사람의 의식관념이 개방되어 가치관도 다원화되었다. 2000년 이후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대외적으로 더욱 개방되어 중국사회는 적극적으로 세계화의 조류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개혁개방 후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세계화와 정보화

조류의 영향은 이 세대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커다란 사회배경이 되었다. 중국사회의 이런 거시적 변화에서 한자녀 세대는 선명한 변화의 표지가 되었다.

한자녀 세대는 개혁개방 후 사상이 가장 활발하고 가장 개방된 시대에 태어났다. 1980년대는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 낡은 규범이 해체되었지만 새로운 규범이 아직 형성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후 세계화 영향 아래 외래문화가 급격히 도입되어 다문화가 발흥되고 전통문화의 권위는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개방된 환경 안에 성장해 나가는 한자녀 세대는 전통에 구속받지 않고 외래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전통유교문화를 낡은 규범으로 생각하여 이런 전통구속 속에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들이 서구의 선진적인 이념을 받아들이면서 이전세대와 전혀 다른 의식관념을 보여준다. 그 중에 서구의 민주평등의식이 강해졌고 가족관계에서는 세대 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부부 간의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였다(이발,2008). 그들은 가정일에 대한 평등한 결정권과 재산권을 원한다. 부부사이에도 서로 독립되어 자유로운 경제 권리를 가지기를 원한다.

또한, 이전세대는 보통 다자녀가족과 직계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형제자매 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핵가족과 소자녀 가족이 형성되는 바람에 한자녀 세대는 형제자매가 없으며 부모의 과도한 사랑을 받아 ‘소황제’가 되었다. 이런 특별한 가족 환경과 인간관계는 한자녀 세대의 성장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지금 중국사회에서 독생자녀 세대는 자아중심적이고 과도하게 물질화된 세대로 평가된다. 독생자녀들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자아중심의식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여겨진다. 그들에게는 가족보다 자기의 삶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면서 사회와의 접촉은 점점 광범위하게 되고 동료친구와 사회가 그들의 가치관에 준 영향은 부모보다 훨씬 커지게 되어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게 되어 반항행위도 일으킨다고 여겨진다. 또한, ‘80후’ 독생자녀 세대의 성장은 중국사회의 현대화 과정과 같이 수반되어 그들 부모세대가 누

리지 못했던 풍부한 물질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개혁개방 과정에 확산된 세속화 가치관은 강해진다. 게다가 시장경제체제 도입 이후 한자녀 세대는 강렬한 경쟁의식이 강해진다. 그들 부모에게는 자녀가 삶의 중심이고 유일한 희망이어서 자녀가 더 경쟁력이 있게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교육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독녀가족에게 딸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딸에 대한 교육투자가 남아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작용할 수 있다.

한자녀 세대는 이런 문화, 사회경제의 변화 속에 이전세대와 달리 희생의식이 약하고 전통 가족관과 결혼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들은 결혼을 선택할 때 자기의 발전, 삶의 즐거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 결혼에 있어서 서로 간에 친밀성, 상대방에 대한 양해와 가족의 화목을 더 중시하게 된다(이발,2008). 그리고 서구의 문화 형태, 생활방식과 가치관도 독생자녀의 삶에 스며들어 전통적 가족관념을 많이 변화시켰다. 지금 독생자녀 부모의 공소(空巢) 증후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확대되고 있는 것도 그들의 가족의식의 약화와 핵가족에 대한 선호와 깊이 관련된다. 그로인해 한자녀 세대의 경제, 문화 특징은 가족패턴과 남아선호사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인한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한자녀 세대의 이런 특징은 어떻게 가족변화, 자녀효용가치 변화와 남아선호사상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Ⅲ. 한자녀 세대의 가족변화와 남아선호사상의 변화

#### 1. 가족의 변화

##### 1.1 가족규모와 구조의 변화

중국은 건국 초기에 소련을 모방하여 출산을 장려하였다. 아이를 많이 낳은 어머니는 ‘영웅엄마’로 불리었다. 그 당시 마오쩌둥은 중국에 인구가 많은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마인추(馬寅初)의 관점과 상반된다. 마인추는 <新人口論>에 ‘중국의 인구가 과다하여 원래 유한 자금의 반을 소모한 결과, 자본축적과 공업화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그의 이론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1969년까지 중국의 인구는 약 8억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70년대부터 중국은 계획생육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는 아이 2명을 낳은 것도 ‘계획생육’이라고 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초에는 ‘한 명은 너무 적고, 두 명은 많지 않고, 3명은 적당하다.’라는 구호가 있었는데, 2년 후에는 ‘계획생육 실행, 아이는 두 명만 낳아라’는 구호로 바뀌었다. 1973년에는 ‘晚, 稀, 小’<sup>5)</sup>라는 요구를 제시했으나 1978년에는 ‘되도록 한 명만 출산하라’, ‘晚婚, 晚育, 少生, 優生’라는 구호가 생겼다. 1949년~1980년 기간 동안, 중국의 인구는 4.3억 명 증가하였다. 중국은 인구증가의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한 아이 낳기’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1982년에는 계획생육 정책을 국책(國策)으로 정하였다.

‘한 자녀 정책’은 인구성장 뿐만 아니라 가족 패턴에도 영향을 가져왔다. 출산율은 5.8부터 1.8로 급격히 떨어져서 전통의 다자녀 가족은 소자

---

5) 晚: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하다. 稀: 두 아이 낳은 시기 간격은 4~5년이다. 小: 적게 출산하다.

녀 가족으로 변화하였다. 소자녀 가족의 형성은 결국 자녀양육의 부담이라는 경제적 상황이 전통적 가치에 앞서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아들 딸 구별 없이 하나만’이라는 소 자녀관이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소 자녀관의 변화는 자녀의 효용가치의 변화도 일으켜서 사람들의 남아선호경향도 변화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12명의 인터뷰 대상자들을 통해 ‘한 자녀’정책 아래 가족규모와 구조의 변화로 인한 이들 가족 세대 간의 남아선호사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아래의 <표15> 에서 볼 수 있듯, 인터뷰 대상자 12명의 가족규모는 1세대 조부모로부터 본인 세대에 이르기까지 점점 작아지고 있다. 1세대 중 가족규모가 제일 작은 경우는 30대 짝씨의 조부모 가족인데, 그의 자녀수는 3명 (2여1남)이다. 이에 비해, 짝씨 부모세대의 자녀수와 본인의 이상 자녀수는 모두 1명이다. 자녀수가 제일 많은 가족은 20대 장씨의 조부모가족과 40대 비씨의 조부모가족이며 모두 7명이었다. 3세대의 자녀수나 이상 자녀수는 보통 1~2명 이내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인터뷰 대상자 가족의 각 세대마다 자녀수가 감소하였고 소자녀 가족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12명 중 7명이 이미 기혼상태이나, 7명 중 현재 부모를 모시고 사는 이는 50대 장씨와 진씨 2명뿐이다. 그리고 미혼자 중 결혼 후 부모를 모시고 살고 싶다는 이도 30대 양씨밖에 없다. 이는 20~40대 세대들이 핵가족 생활을 더 선호하고 직계가족 형태를 원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50대와 20~40대의 부모 세대들이 직계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던 것과 대조적인 것이다.

<표15> 인터뷰 대상자 세대별, 연령별 출산자녀수(단위: 명)

연령 별	인터뷰 대상자	조부모 출산자녀수	부모 출산자녀수 (본인 포함)	본인 형제자매 수	본인 출산자녀수
20대	이씨(여)	5 (4남 1여)	3 (2남1여)	2	-
	오씨(여)	4 (2남 2여)	2 (1남1여)	1	-
	장씨(남)	7 (4남 3여)	3 (2남1여)	2	-
30대	곽씨(남)	3 (2여 1남)	1 (1남)	0	-
	양씨(남)	4 (2남 2여)	2 (2남)	1	-
	최씨(여)	4 (3남 1여)	2 (1여1남)	1	1 (1여)
40대	비씨(여)	7 (1남 6여)	2 (1여1남)	1	1 (1남)
	유씨(남)	5 (1남 4여)	2 (1여1남)	1	1 (1남)
	적씨(여)	6 (2남 4여)	4 (1남3여)	3	2 (2여)
50대	장씨(여)	5 (5남)	2 (1여1남)	1	1 (1여)
	진씨(남)	5 (1남 4여)	2 (1여1남)	1	1 (1여)
	왕씨(남)	6 (3남 3여)	3 (1남2여)	3	2 (1남 1여)

중국은 가족계획 실시 이전에는 부부가 남아를 선호할 경우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방식으로 아들을 얻을 수 있다. 당시에는 출산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자녀가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최씨(30대, 여)의 외조부모도 강한 남아선호사상을 갖고 있어서 아들을 얻기 위해 자녀를 많이 낳았다.

**최씨(30대, 여):** 외할아버지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딸이 4명 있었는데 아들 한 명을 낳으려고 계속 낳았어요. 나중에 드디어 아들이 한 명 생겼어요. 바로 우리 외삼촌이에요. 그분은 외삼촌을 각별히 예뻐했어요.

당시 이런 다출산의 방식으로 아들을 갖는 것은 매우 보편적이었다. 당시에는 성 선택 기술도 없어서 인위적으로 아이 성별에 대해 조정할 수도 없었으므로 출생성비 불균형의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한 자녀 정책’의 실시와 성 선택 기술의 이용은 남아선호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한된 출산 공간 내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아이의 성별을 조정하도록 하

였다. 현재는 사회발전에 따라 자녀양육비용도 급격히 상승하여,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소 자녀를 원한다. 특히 중간계층은 자녀의 질적 양육을 더욱 중시하게 되어, 아이를 한 명 더 낳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씨(20대, 여)는 2명의 자녀를 원하지만 양육비용을 생각하면 자신이 잘 키울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한다.

**이씨(20대, 여):** 나는 아이 2명을 낳고 싶은데,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신문을 보면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유치원부터 좋은 곳에 다니게 해 주어야 하고 결혼까지도 모두 다 챙겨야 해요.

이런 가족규모와 가치의 변화는 자녀의 효용가치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전통가족 관념에서의 자녀의 가계계승, 노인부양 효용가치, 경제효용가치가 달라지고 있어, 남아선호사상의 변화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소자녀 가족이념에서의 자녀보험효용, 감정효용과 사회평가효용가치의 변화도 어느정도 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족규모와 자녀의 효용가치의 변화가 남아선호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2 가족에 대한 관념의 변화

가족계획정책과 개혁개방 이후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관념도 변화하고 있다. 도시화와 시장경제 전환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사람들 간의 관계도 변화하게 되었고, 개인의 이익과 발전이 최우선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앞에 말한 듯이 ‘한 자녀’ 정책 아래 태어난 독생자녀 세대는 대부분 자아중심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소속감도 약해졌다. 이러한 가족 중심 가치의 약화와 개인주의의 강화는 남아선호사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1.2.1 소원된 가족관계로 인한 가족의식의 약화

이씨의 고향은 산둥성 제남시 농촌인데 거기는 남아선호사상이 비교적 강한 편이다. 이곳에는 이씨와 같이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에, 그의 고향에는 아직도 많은 젊은이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경우에는 아들과 부모가 여전히 한 촌에 있어, 자녀가 결혼 후에는 부모와 가까이 살고 있다. 이곳에서는 보통 아들이 결혼하면 부모는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새로운 집을 지어 주고 같은 마당에 살게 한다. 아들이 한 명만 있는 경우에는 결혼 후 그냥 부모와 함께 살게 된다.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 사는 것은 강한 가족의식과 종족의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사회는 도시화 과정의 가속화에 따라 변화의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더 이상 강하지 않아, 쉽게 약해지거나 분리될 수 있는 관계로 변하고 있다. 이씨의 촌락도 최근 도시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 간의 비교적 깊은 연대관계도 변화를 맞게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씨(20대, 여):** 우리 촌은 지금 城鎮화를 하고 있어요. 몇 년 지나면 아마 촌락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산둥에서는 이런 城鎮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작은 촌락을 합병하는 것. 제남의 경우가 바로 그렇죠. 지금 鎮을 만들려고 작은 촌락은 큰 촌락으로 합병하고, 혹은 직접 鎮으로 합병하기도 해요. 아파트를 짓고 각 집의 면적을 재어서 나중에 이 면적에 따라 아파트를 나누어 줄 거예요. 앞으로 정말 촌락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들 아파트로 이사 가면 서로 떨어지게 되고 촌락 전체는 분리될 거예요. 지금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모여 살아도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도시화 과정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의 변화는 집단의식을 약화시키고 개인의식을 강화시킨다. 게다가 가족 구성원의 분리는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약화시켜 가족에 대한 관념도 변화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가족의식과 종족의식이 약화되면 가문과 종족의 연속이 더 이상 중요하

지 않을 수 있다. 가게계승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면 남아선호사상도 변화할 수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친밀성을 점점 상실하게 되고,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해진다. 젊은이들은 가족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삶의 질이 더 중요시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려는 의식도 약화된다.

최씨(30대, 여)의 남편은 원래 농촌출신인데 지금 고향과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일하고 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지고 있다. 고향에는 부모와 누나 한 명이 있는데, 부모와는 가끔씩 연락하지만 누나와는 연락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평소 자신의 일에 바쁘고 연락할 시간조차 없다고 한다.

**최씨(30, 여):** 예전에는 다 부모와 같이 살았고 형제자매도 많아 관계가 아주 친밀했죠. 지금은 우리 남편은 누나와도 자주 통화하지 않고 연락도 별로 없어요. 다 각자 사는 거죠. 정이 단박해졌고, 예전에 친척들이 다 모여서 살던 것과 많이 달라요. 다들 떨어져 지내고 있는데.

최씨와 남편이 고향과 멀리 떨어져 사는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들은 도시생활에 적응하여 도시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하였다. 도시에서의 인간관계는 농촌사회와 많이 다르다. 도시에서는 개방적인 공간 내에서 사람들 간에 더욱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인들은 반드시 깊은 연대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삶에 더욱 집중한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주민들 간의 관계가 더욱 친숙한 편이고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최씨의 남편은 대학을 다니기 전 계속 농촌에서 살아왔는데, 이후 도시문화의 영향을 받아 가족의식도 많이 약화되어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졌다.

그리고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특히 여성들은 시부모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하며, 개인공간을 원하여 핵가족 형태를 더 선호하기도 한다. 오씨는 향후시어머니와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하며, 그래야만 서로 더 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오씨(20대, 여):** 만약 나중에 시어머니랑 같이 살게 되면 서로 눈에 거슬리겠죠. 자녀와 부모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제일 좋은 거리는 ‘한 그릇 국물의 거리’예요. 국물이 끓은 후에 부모 집에 갔다 줄 때 아직 따뜻하고 마실 수 있는 거리를 말해요. 이래야 부모가 매일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챙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부모님과 별로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오씨처럼 시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 적지 않다. 그들에게 핵가족 형태는 개인의 삶과 행복을 위해 더 적당한 가족 제도이다. 직계가족의 깊은 가족간 연대감도 약화되어 가족의식도 약해진다. 개인이 가족의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부모도 자녀를 위하여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여긴다. 가족은 이제 반드시 한 집에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며, 서로 간의 관계는 더 자유로워졌다.

자녀가 외지에서 일할 경우, 그들에게 부모는 손님처럼 놀러 와도 좋은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부모를 모셔와 오랫동안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최씨 주변에는 이러한 경우가 많다. 최씨의 친구들이 일하는 직장은 모두 고향에 있지 않아, 이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와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부모가 찾아와서 몇 달 동안 묵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장기간 함께 사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한다. 물리적 거리는 사람들의 가족 관념을 약화시키며, 가문의 연속에 대한 책임감을 덜게 한다. 제사를 지낼 때도 바쁜 일상 때문에 제사에 참석하러 가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제사에 대한 관념도 약화되고 있다.

**최씨(30대, 여):** 예전에는 청명절이면 다들 묘지로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다들 도시에 살고 있어서 별로 안 가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유골을 바다에 뿌렸어요. 아빠가 그걸 원하셨죠. 사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녀와 손자녀들이 다 돌아와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들 별로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노인들만 남게 되었죠. 우리 엄마는 (오면) 누가 괴롭히냐고 했어요. 지금은 생활환경이 변해서, 예전처럼 같이 모이지도 않고,

(제사가) 별로 의미 없어졌어요.

제사는 가족주의 관념을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가족과의 분리로 젊은이들의 가족에 대한 관념이 약해지고 있다. 큰 집단이 작은 집단으로 분해되며 응집력이 떨어져 집단의식이 구성원을 지배하기 어렵게 되었다. 과거의 가족은 거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으며, 유동적이지 않은 큰 집단이었다. 가족중심 의식도 강하고 가족의 연속은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현대 가족은 핵가족으로 분리되어 거리상으로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에 대가족의 연대관념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제사에 대한 의식의 약화는 바로 이러한 가족의식의 약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가족의식의 약화도 남아선호를 감소시킬 수 있다. 남아의 가계계승과 양로보장 기능은 바로 가족의 연속을 위하는 것이고 가족주의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현재 가족 구성원들의 분리로 이런 강한 가족 관념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어 남아에 대한 집착 역시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남아선호사상 변화는 출생성비 불균형 완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자식들이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영향도 동시에 줄어들게 되었다. 직계가족 형태에서는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므로, 자식들은 여전히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자녀들이 농촌 부모들의 보수적인 생각으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가계계승에 대한 책임감도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이 큰 것이다. 현재 젊은이들은 독립적인 의식과 성향을 가지게 되어, 부모들은 과거와 같이 자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부모의 남아선호경향 역시 자녀에게 강요되기 어려워, 이 역시 젊은이들의 남아선호사상이 약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씨(40대, 여) 남편의 고향은 현재 비씨가 살고 있는 도시와 4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그의 부모는 고향인 농촌에 계속 살고 있는데, 비씨와 남편은 명절에만 집으로 돌아간다.

**비씨(40대, 여):** 저는 처음에는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는 통신도 발달하지 않아서 편지로만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아이 문제로 자주 편지를 보냈어요. 나중에 생각해봤는데, 시부모에게 아들 하나만 있는데 결혼 후 아이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제가 타협했어요. 결혼 3년 후에야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만약 같이 살았으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비씨의 경우를 보면 그 당시 통신수단이 불편하고 시부모와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서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지만, 가족의식이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래도 지리상의 거리로 비씨에게 외부로부터 온 압력을 많이 줄어 들었고, 후일 그녀가 생각을 바꾼 것은 자발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부모와의 분거는 가부장제의 기반을 흔들어 윗세대의 영향을 줄어 들게 한다.

최씨(30대, 여)는 현재 딸 하나만 있는데, 시어머니는 손자를 원했지만 멀리 떨어져 살고 있기에 최씨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는 거리의 원인도 크지만, 최씨 본인의 강한 독립적 성향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는 만약 둘째를 낳는다면, 이는 자기 가정을 위한 일 일뿐 부모님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만약 시어머니가 하주종일 옆에서 잔소리를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했다. 이와 같이 현재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예전보다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은 이것도 지리상의 거리가 멀어져서 서로간의 연대감이 약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한다. 즉 가족의식과 가족연속에 대한 책임감이 사라지고, 개인의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 1.2.2 한자녀 세대의 강한 개인주의 의식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독생자녀들이 크게 늘어났다. 독생자녀는 성장과정에서 자아중심적인 의식을 형성하기 쉽다. 중국에서는 독생자녀를 ‘소황제’라고 부른다. ‘소황제’라는 말은 독생자녀들이 과잉보호 아래 자라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부모나 조부모가 다 해 주어서 황제

처럼 대우를 받고 자란다는 뜻이다. 그들은 항상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크게 줄어들었다. 광씨(30대, 남)는 외동아들이고 그의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독생자녀들이다.

**광씨(30대, 남):** 독생자면 보통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손해 보지 않으려 하죠. 가족들의 기분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중국은 너무 커서 일하는 곳과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특히 작은 지방 출신 사람들이 큰 도시로 가서 일하면 부모가 아플 때도 가보지 못 하거든요. 내가 본 사람 중에도 경제적 능력은 좋지만 집에도 별로 안 가고, 돌아가도 부모에게 돈만 주고 마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부모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닌데. 부모가 나이가 들면 많은 돈을 가져왔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그냥 자녀가 자기 옆에 며칠 더 있길 바라요. 지금은 설날, 국경절에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1년에 부모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보름 정도 밖에 없을 걸요.

독생자녀들은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더 중시하고 부모와 가족을 위해 크게 기여할 생각이 없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신의 시간과 돈은 아껴야 하고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광씨는 앞으로 복잡한 가족관계를 원하지 않으며 외동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한다. 그는 친척이 많으면 부담스럽고 시간과 돈을 많이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씨의 여자 친구도 독녀이다.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기에, 그녀는 동생이 생기면 자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까 우려하여 동생을 원하지 않았다.

**광씨(30대, 남):** 나는 앞으로 형제자매가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형제자매가 있으면 너무 번거로워져서 그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우리가 도와줘야 하잖아요. 인력이든 돈이든. 되도록 그런 일이 없어야 해요.

**양씨(30대, 남):** 여자 친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동생을 하나 더 낳고 싶어 했는데 여자친구는 동생을 갖기 싫다고 했대요. 그때 집안사람들이 그녀를 아주 예뻐해 주었는데, 동생이 하나 생기면 어른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까 봐 걱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20대와 30대들은 그들의 부모처럼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려는 경향이 약하다. 그들은 자녀를 일찍 독립시키고 싶어 하며, 자녀가 자신에게 크게 의지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자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자기 자신의 삶도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것으로 가족의식의 약화와 개인위주 의식의 강화를 엿볼 수 있다. 꼭씨는 나중에 자녀에게 크게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삶을 버리고 자녀만 위해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는 자녀에 대한 투자로 후에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꼭씨(30대, 남):** 나는 지금 부모들이 자녀에게 쓰는 돈과 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전혀 그런 필요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모두 다 아이에게 바쳐요. 자녀는 아무 걱정도 없게 해주고, 대신 부모가 아껴먹고 아껴 써서 자녀를 잘 살게 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나도 지금 서른이 넘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70세까지 40년이 남는데 내 삶을 다 버리고 모두 다 자녀에게 줘야 되나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중에 우리 부모처럼 자녀를 키우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꼭 좋은 보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형제자매가 있는 가족들은 재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부모가 늙은 후에도 그들을 부양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꼭씨의 부모는 그를 위해 많이 투자했는데 꼭씨는 이런 투자가 별로 의미 없다고 여긴다. 그의 말을 통해 지금 자신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 보답은 부모가 그를 양육하기 위해 들였던 돈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꼭씨는 지금 자신도 자녀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꼭씨는 자기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는 그녀의 인생전부가 아니고 자녀를 위해 인생을 다 희생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바로 독생자녀의 자아중심관념을 드러나게 한다. 이런 개인주의의식은 독생자녀에게만 있는 게 아

나라 한자녀 세대의 보편적인 특징으로 말할 수 있다. 이씨(20대, 여)와 최씨(30대, 여)는 독생자녀도 아니고 그들의 생각도 꼭씨 정도로 강하지는 않지만, 이들 역시 자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다는 생각은 없다.

**이씨(20대, 여):** 내 생각에는, 나도 내 인생이 있고 자녀들도 그들의 인생이 있는데, 물론 나는 최선을 다 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줄 텐데, 자녀들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나도 잘 살아야죠. 여행도 가야 되고 놀 것도 다 놀아야 하고.

**최씨(30대, 여):** 내 자녀가 나중에 결혼하면 내가 그들을 위해 차를 사 주거나 집을 사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도 나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가 내 옆에 있을 때는 최선을 다 할 거지만, 내가 늙은 후에도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젊은 사람은 자기의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딸이든 아들이든 나는 특별히 그들을 위해 돈을 남겨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개인주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이 현재의 부모 세대들처럼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책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가족에게 속박되지 않는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50대들은 현재 젊은이들의 이런 생각을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진 것으로 본다.

**장씨(50대, 여):** 우리 세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점이 좀 부족해요. 책임감이 없고… 아마 이것은 그들 세대의 특징일거예요. 그들은 자신들 위주로 생각하고, 부모에 대한 고려는 좀 적어요.

한자녀 세대의 개인주의 의식의 강화로 가족은 개인에게 있어 더 이상 최우선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감소



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이러한 가족의식은 약화하여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을 뒷받침해 온 요소들도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남아선호사상은 쇠퇴되면서 출생성비 불균형 현상도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전통가족이념에서의 자녀효용가치의 변화

전통가족이념에서는 남아가 가계계승과 노인부양의 효용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나, 최근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남아의 효용가치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중국의 가족기능도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가족 기능의 변화는 남아선호의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출생성비 불균형 약화에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2.1 가계계승효용가치의 약화

가계계승은 전통적인 남아선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한 가족에게 가계계승은 가족을 연속시키는 중요한 기능이며 가부장제를 유지시키는 배경이다. 가부장제 아래 남아는 가계계승의 효용을 갖는 반면 여아는 그러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가부장제는 ‘부계’ 중심 이념으로 한 가족에게 남성 중심의 가치를 강조한다. 남자는 가족의 연속과 존재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쯤으로 간주된다. 아들이 없으면 가족의 연속이 문제시되며 이는 가문의 쇠퇴로 여겨진다. 따라서 가계계승은 남아를 선호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다.

#### 2.1.1 전통 가부장제 아래 남아의 가계계승효용가치

중국에서 아직까지 남아선호가 강한 지역에는 가계계승 의식이 많이

남아있다. 이씨(20대, 여)가 살던 촌락은 거주하는 촌민이 대부분 ‘이씨’라서 예로부터 ‘李家村’라고 불리었다. 이 촌락은 주변의 다른 촌락들과 한 ‘족보’를 공유해왔다. 지금은 족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씨의 아버지는 족보를 찾아 계속 보완하고 싶다고 한다.

**이씨(20대, 여):**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에요. 우리 촌에도 이씨가 많아요. 촌에 족보가 있었는데 이 족보는 다른 촌이랑 같이 쓰고 있어요. 족보가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려고요. 같은 촌수에 속한 자녀의 이름은 족보 중 같은 촌수 글자를 써야 하는데 우리세대 이후로는 쓸 수 있는 글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은 족보를 보완할 때가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장남이라 이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버지는 ‘내가 안 하면 앞으로 너희 세대들은 더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셨어요. 가족을 보완하려면 돈을 써야 하는데 일단 족보부터 찾아야죠.

족보는 한 가족의 발전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이씨의 아버지에게 족보를 찾고 보완하는 것은 가족의 원천을 찾고 연속시키는 일이다. 이런 ‘족보’라는 매개를 통해 가족의 연대를 강화하고 가족구성원들 간의 소속감을 강화하려고도 한다. 이렇듯 가족의 연속을 중시하는 의식은 남아선호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들을 낳아야 가족이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며, 가족을 지키는 자신의 의무가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계계승은 아직까지도 가족의 중요한 기능이어서, 가계계승을 위한 남아의 효용가치는 여아에 비해 절대적인 우세를 지닌다. 이씨의 부모는 첫째 아들을 낳은 후에도 아들을 하나 더 낳으려고 노력한 결과, 생육계획 정책 하에서도 자녀를 3명이나 낳게 되었다. 이씨 부모의 강한 남아선호사상이 엿보인다.

이씨 아버지의 한 친구도 아들 낳기에 집착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누나 두 명과 성장하였다. 결혼 후 가계계승을 위해 아들을 갖고 싶어 아이를 두 명 낳았는데 모두 딸이었다. 딸 두 명은 모두 호적에 올리지 않았고, 학교를 보낼 나이가 되자 문제가 생겨 벌금을 물어야 했는데, 돈이 없어 벌금을 물 수도 없었다. 그런데 그 후 아이를 또 낳기

위해 다른 지방으로 갔는데, 아이를 낳았지만 또 딸이었다. 그러던 중 그는 병까지 얻어 불행하게 사망했으나, 아이 엄마가 도저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어 딸을 다른 집에 보내게 되었다. 촌에서는 다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다고 했다.

위 사례를 보면 이씨 촌락의 부모세대들은 비교적 강한 남아선호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가계계승을 위해 아들을 낳으려는 생각이 강하다. 이씨 아버지의 친구 모두 본인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기에 가계계승의 의무감이 컸다. 이들은 아들을 낳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듯 가문의 연속에 대한 강한 책임감은 가족의 가계계승 기능을 계속 유지시키는 근간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환경에 놓인 경우, 사람들은 주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타인들이 자신을 경시하며 체면을 잃는다고 생각한다.

20~40대 인터뷰 대상자의 부모세대는 비교적 강한 남아선호사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아들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아직 전통적인 성향이 깊이 남아 있기에 가족에 대한 이러한 의무감도 큰 것이다. 최씨(30대, 여)의 외할아버지는 늘 손자 하나를 원했지만 최씨의 외삼촌은 독신주의를 고집하며 계속 결혼 하지 않았다. 최씨의 어머니는 맏딸이며, 그의 남동생은 장외손자이다. 최씨의 기억으로는 외할아버지가 그와 동생에 대할 때 차별이 있었다고 한다.

**최씨(30대, 여):** 남동생이 식사 후 테이블만 닦아도 외할아버지는 아주 불쾌해했어요. 이런 일은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어렸을 때 동생은 내 옷을 입은 적도 있는데, 돌때까지는 아직 남아인지 여아인지 티가 잘 안 나잖아요. 언젠가 어린이날에 외할아버가 나와 동생을 데리고 놀러 나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또 내 옷을 입고 있어서 외할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옷 가게가 문을 열면 당장 새 옷을 사 입어라. 안 사 입으면 오늘 안 데려 갈 거다. 남자아이면 당연히 남자 옷을 입어야지 어떻게 여자애들 옷을 입을 수 있냐. 재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비씨(40대, 여)는 남동생이 한 명 있다. 남동생은 결혼 후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비씨의 아버지는 손자를 더 원하신다고 한다. 왜냐하면 비씨의 할머니는 자녀 7명을 낳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유일한 아들이었고, 그의 동생은 집안의 유일한 손자이기 때문에 비씨의 아버지 역시 아들을 더 원하게 되었다. 비씨의 아버지도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전통 가부장제 아래 남아가 가진 우위가치를 인정한다. .

그러나 비씨 본인은 남아를 더 좋아하지만 그 이유는 가계계승이 아니다. 사회생활에 있어 남자가 여자보다 유리하기에 남아를 선호하는 것이다. 지금 중국사회에서 남녀 간의 불평등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성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 비씨는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이었기에, 자녀에게는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남아이면 사회에서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비씨(40대, 여):** 나는 임신 후에 아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비교적 남아를 더 좋아해요. 내가 여자라서 어떤 일을 할 때 구속을 받은 느낌이 있거든요. 남자면 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내가 남자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남아를 가지고 싶었어요. ‘호남아(好男兒)지(志)재(在)사방(四方)’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자면 매일 가정 일 때문에 바쁠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비씨는 부모세대처럼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 가계계승보다는 사회기회구조가 남성에게 더 유리하기에 남아를 선호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기회구조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로 빚어진 젠더 불평등의 반영이다. 그러나 가계계승 의식이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아이의 성별에 대한 선호 경향은 남아의 가계계승 효용가치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 2.1.2 도시화로 인한 가계계승 의식의 약화

진씨(50대, 남)는 지금 딸이 한 명 있지만, 딸을 출산할 당시 아들을 더 원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과거에는 전통사상의 영향으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관념이 있었다. 그러나 진씨에게는 현재 그와 같은 생각은 별로 없고, 많이 약화되었다고 한다. 진씨는 원래 형이 한 명이 있었으나 사고로 죽었다.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 된 진씨는 가계계승의 책임감이 강했다. 그러나 개혁개방과 ‘한 자녀’ 정책 이후 원래 농촌이었던 고향은 지금은 작은 도시로 변했다. 이런 주변 환경의 변화로 그러한 의무감은 감소되었고, 따라서 남아선호의 경향도 약화되었다. 이는 바로 가족의 가계계승 기능 약화로 인해 아들의 효용가치도 감소하여 남아선호가 약화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시화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촌사회로부터 공업과 서비스업을 위주로 하는 현대 도시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바로 농촌인구부터 비 농촌인구로, 농촌지역부터 비 농촌지역으로, 농업부터 비농업으로의 전환 과정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의 인구유동에 대한 통제 완화로 대량의 농민공들이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도시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도시의 생산방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새로운 도시문화의 영향으로 전통의식이 약해지면서 남아선호사상도 따라서 약화된 것이다.

이씨와 장씨의 부모는 모두 남아선호 경향이 있지만 이씨와 장씨 본인은 남아선호 경향이 없다고 밝힌다. 장씨의 부모는 결혼 후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장씨는 어렸을 때부터 도시에서 자랐다. 그러므로 비록 장씨의 아버지는 가계계승의 관념이 있지만 장씨는 도시문화와 환경의 영향을 받아 가문의 연속을 위해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없는 것이다. 이씨는 농촌에서 자라왔지만 이후 도시에서 대학을 다녔다. 이씨는 아버지가 족보를 보완하려고 하지만, 자기 세대는 족보에 별로 관심도 없고 앞으로 족보가 계속 존재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한다.

이씨(20대, 여): 나는 족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여겨 족보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족보가 후일에도 계속 명맥을 유지할 시간은 그다지 길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부모세대는 농촌에서 계속 살아왔고 도시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과거에는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족보에 따라 지어야 했지만, 지금 사람들은 점점 흩어져 가족에 대한 개념도 점점 약해질 것 같아요. 이름을 지을 때도 족보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거구요.

이씨는 농촌에서 자랐지만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도시에서 살 거라고 한다. 그는 도시화의 조류에 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씨의 형제들도 그와 같은 경우에 속해서, 나중에 이들의 자녀 3명은 결국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족의 해체와 분리로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감소되고, 가족 연속에 대한 의식과 개념도 약화될 것이다. 또한 도시의 공간은 농촌처럼 깊은 연대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해, 남아를 낳지 못해도 주변 환경에서 비난이나 지적을 받을 일은 별로 없다. 또한 그에 따른 가계계승의 책임감과 압력도 약화된다.

족보는 가족의 연대와 연속을 드러내는 특징을 지닌다. 지금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가계계승을 자신의 중요한 책임으로 여기지 않는다. 특히 도시화와 대학 진학을 상승에 따라 농촌의 젊은이는 크게 줄고 있으며 도시로 이주하는 추세가 강하다. 지금 중국의 많은 농촌지역은 진(鎭)으로 전환하려 여러 조치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젊은 세대는 농촌을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도시화 과정 속에서 '의무'로 여겨졌던 가계 계승의 책임은 더 이상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어려워졌으며, 자아 개발, 경제적 능력, 개인적 성취 등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기준 하에,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의식은 점차 약화되며 가족의 가계계승기능은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 2.1.3 독녀가족 가계계승 의식의 약화

또한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독녀호’가 증가하였는데, 이런 가족에게 가계계승은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독녀호’의 증가는 가계계승 의식의 약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이 없으며 나만 없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아들이 없는 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 등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성 선호가 없는 환경의 조성은 남아선호 약화의 큰 배경이 된다.

장씨(50대, 여)는 한 소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가 아이를 낳을 당시 ‘한 아이’ 정책은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었다. 이에 주변 사람들이 보통 모두 한 자녀만 낳았다고 한다. 장씨도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아이를 한 명만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장씨(50대, 여):** 그때는 모두 한 명만 낳을 수 있었어요. 둘째를 낳으면 벌금을 내야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잃게 될 상황이었죠. 옛날에는 다들 3,4명씩 낳았는데, 그 때는 다들 많이 낳았기에 자연스럽게 많이 낳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쯤에는 다들 한 명만 낳았기에 나도 둘째 낳을 생각이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한 명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둘째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생육계획정책의 호소력 때문이죠.

진씨(50대, 남)도 장씨와 같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진씨는 아들을 갖고 싶었지만 정책 때문에 낳지 못 했다. 그때 정책을 위반하면 큰 손해를 감수해야했기에, 아들을 낳기 위해 정책을 어길 생각은 없었다. 그리고 다들 정책에 따라 아이를 한명만 낳았고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남아를 원했던 사람조차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진씨(50대, 남):** 딸을 낳은 후 아들을 한 명 더 낳고 싶었죠. ... 그런데, 정부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도 아들을 갖기 위해 둘째를 낳은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당시 국가의 통제는 매우 엄격해서 둘째를 낳으려면 몰래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낡아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기업에서 이런 경우는 더욱 적어요. 들키면 처분을 받아야 하고 해고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장씨와 진씨의 경우를 보면 ‘한 자녀’정책은 당시 강력한 국가통제 아래 엄격히 시행되었다. 이러한 엄격한 정책 하에서는 아들을 선호하더라도 낳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주변에 ‘독녀’ 가정이 증가하며 아들에 대한 집착도 감소하였고, 이러한 현상의 장기간 지속에 따라 자연스럽게 남아의 가계계승 효용가치도 줄어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엄격한 정책 아래에서 낳은 가치는 약화되고, 동시에 새로운 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는 새로운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부지불식 중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남아선호도 가계계승 의식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 출현에 따라 더욱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 남아의 가계계승 효용가치 감소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도시화의 영향으로 가족 구성원의 가계계승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약해져 가문의 연속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둘째, 대학 진학 등을 위해 가족 구성원의 공간적 이동이 예전보다 훨씬 활발해지고, 농촌 청년들이 더 이상 고향의 집 근처에만 살지 않으며 개인의 발전을 위해 멀리 떠나기도 하는 현상 등이다. 셋째는 가계계승의 중요성이 자녀 개인의 성공으로 대체되어, 자녀들이 가계계승의 책임감을 별로 갖지 않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자녀’ 정책의 시행으로 ‘독녀’ 가족이 크게 늘어나며 가계계승의 중요성도 예전보다 줄어든 것이다.

현재 종족의식이 강한 농촌지역에는 여전히 가계계승을 중시한 이들이 있고, 이들은 대를 잇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긴다. 그러나 최근 도시화, 인구이동, 독녀가족 증가로 인해 가족의 가계계승 기능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의 가계계승 기능의 약화로 아들의 가계계승을 위한 효용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아를 선호하



던 풍조는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가계계승 기능의 약화는 남아선호를 감소시킬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도시화 수준이 더 높아져 인구이동 더 활발해지고 독녀가족도 더욱 증가하면, 남아의 가계계승효용가치가 더욱 약화되며 이에 따라 남아선호사상도 변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2.2 노인부양효용가치의 약화

중국의 전통적인 남아선호의 또 하나의 원인은 노후대비이다. 특히 직계가족 제도 하에서 아들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기에 아들의 경제적 부양과 관련한 효용가치도 높은 편이었다. 반면 딸은 시집을 가야하며 경제적으로는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도 별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사회의 양로체계가 보완되고 ‘한 자녀’ 출산 정책이 자녀의 가치를 변화시킴에 따라, 가족의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기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 2.2.1 소자녀 가족 형태로 인한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20대, 30대, 40대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자신은 노후에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노후에 본인들이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있을 것이므로, 자녀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한 50대 대상자는, 가능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으려 하나 만약 큰 병에 걸리면 자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20대 대상자 중 오씨와 장씨의 부모는, 노후 생활에 있어 자녀의 경제적 부양을 원치 않으며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한편 이씨의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에게 약간의 경제적 부양을 제공하기를 원했다. 이씨(20대,여성)는 형제 중 둘째이며 오빠 한 명과 남동생 한 명이 있다. 그는 이모로부터 자신이 태어날 당시 부모의 생각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이씨(20대, 여):** 이모가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더 낳아서 나중에 오빠랑 서로 의지할 수 있게 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뜻밖에도 내가 여자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또 우리 남동생을 낳았어요. 두 형제가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만약 내가 남자라면 아마 셋째는 낳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여자라서, 당시 부모님은 나중에 내가 시집가게 되면 오빠와 남동생이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과거 이씨의 부모는 농촌에서 아이를 낳은 후 대학까지 보내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또한 20년 후 사회가 현재와 같이 발전할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다. 현재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대부분 농촌으로 돌아가 살지 않는데, 당시에는 다들 나중에도 촌에서 살게 되고 집 근처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씨의 부모는 자녀가 바로 한 촌에서 자신의 눈 앞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나중에 이씨를 시집보내면 형제 둘이 의지하면서 부양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때 만약 아들 혼자면 너무 외롭고 부담이 크기도 하다.

이씨의 부모세대가 아이를 낳을 당시 형제 둘이 부담을 나누어 서로 의지하기를 바랐던 것은, 사실 노후 부담을 한 자녀만 지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로써 당시 이씨 부모는 노후 생활을 아들에게 의지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씨의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을 받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이것을 의무와 효도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으며 자식에게 크게 의지하려 하지도 않는다.

오씨(20대, 여성)도 농촌에서 자랐지만 그의 고향은 비교적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다. 오씨 고향은 대나무가 많이 나는 지역이어서 대나무 관광 혹은 대나무를 이용해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주변 대부분 촌민들의 수익은 적지 않다. 오씨의 부모도 공장을 열었는데 집안 형편은 괜찮은 편이다. 현재 오씨의 삼촌이 조부모를 모시고 있지만 오씨의 부친도 매달 생활비를 보태어 주고 있다. 현재 조부는 중병을 앓고 있어, 매년 의약 비용만 2~3만원이 든다. 이 모든 비용들은 현재 오씨의

부친과 삼촌이 나누어서 부담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씨의 부모는 자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 오씨와 그의 동생은 나중에 부모 부양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씨(20대, 여):** 우리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의 세대는 가장 힘든 세대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위에 계신 노인부양도 해야 하지만 아래 자녀도 양육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양로보험 같은 것도 없고, 부모님이 그분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했어요. 아빠는 현재 우리 세대가 노인 부양에 있어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도시의 기업들과 회사들은 직원의 양로보험을 부담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농촌에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양로보험에 들어야 해요. 아빠는 나중에 일을 그만 두어도 보험이 있으면 매월 2000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그 정도면 그들에게는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그분들은 나중에 우리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삶만 제대로 살면 된다고 하시죠.

현재 농촌에서 이런 사회보장체제는 미비한 수준으로, 자비로 이를 부담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씨의 아버지가 현재 스스로 양로보험에 가입한 것은 향후 자신의 노후 생활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씨는 남동생 한명이 있는데, 오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있어도 앞으로 그에게 경제적으로 기대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의 아들은 노인부양에 있어서 경제적 효용가치가 많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인터뷰 대상자들의 부모 세대의 생각을 통해 살펴볼 때, 이들 부모 세대가 자신의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것은 소자녀 가족 형태와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독자, 독녀만 있는 가족이 많이 늘어 노인의 부양책임이 한 자녀에게만 돌아가게 된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이들 자녀는 이후 결혼하게 되면 젊은이 2명이

노인 4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독생자녀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보호의식이 매우 강하여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자녀만 가진 부모들은 자신이 노후에 자녀에게 부담이 될 상황을 걱정하여 노후 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씨(50대, 여성)가 자녀를 출산하던 시기에는 생육계획정책이 엄격히 시행되던 시기였기에, 그는 자녀로 딸 한 명만을 두었다. 10년 전 장씨가 일하던 공장이 파산하고 일자리를 잃은 후, 장씨는 학교 보육원(保育員) 일을 했으며, 현재는 한 연쇄음식점의 관리자가 되었다. 음식점은 사영업체이기에 회사를 통한 양로보험 가입은 어려워, 장씨는 후일 딸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며 양로보험에 들었다. 그녀에게 이상 자녀수를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장씨(50대, 여):** 이상 자녀수는 2명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면 딸 혼자 우리를 보살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 남편의 부모,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돌봐야 하잖아요. 집에 노인이 너무 많아 들은 되어야 분담할 수 있어요. ... 나는 나중에 딸에게 의지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양로보험과 의료보험 비용을 부담하면, 나중에 딸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요. 만약 나중에 아파서 돈이 많이 들면, 그때는 딸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딸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장씨는 현재 자녀 한 명만 있어서 앞으로 딸에게 부담이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아이를 낳을 때 엄격한 ‘한 자녀’ 정책 때문에 그는 아이를 한 명만 낳으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자녀가 2명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녀의 노인부양 부담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장씨는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황이 어려워도 꾸준히 양노보험 돈을 내고 있다.

양씨(30대, 남성)의 부모는 농촌에 살고 있지만 스스로 사회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지금도 돈을 조금 더 모으기 위해 계속 농사를 짓거나 막노동을 하고 있다. 양씨는 매년 부모에게 돈을 부쳐 주었는데 부모는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이다.

**양씨(30대, 남):** 제 부모님도 양로보험이 있어요. 그들은 자꾸 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생각은 나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축해놓으신 돈이 있지만, 저는 매년 돈을 보내고 자주 선물을 사서 찾아뵙기도 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자꾸 요즘 돈은 부족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느냐, 이러면 너는 밖에서 어떻게 생활한다고 물으세요. ... 내 이상 자녀수도 2명이에요. 우리 부모는 우리의 돌봄이 필요 없다고 하시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심리적 부담이 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혼자서 노인 4명을 대해야 하는데 아이 2명을 키우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심리적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위의 사례를 통해 전통적인 가족 부양기능이 가족 밖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의 부양책임이 약화되는 것은 자녀가 감당해야 하는 노인부양 책임이 사회보장체계의 보완으로 인해 감소하는데다, 부모 세대들이 자신들에게 스스로 부양책임을 옮겨놓는 데 기인한다. 특히 ‘한자녀’ 정책으로 다자녀의 전통이 깨졌으므로 이제 소자녀만 있는 가족들은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가 감당해야 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노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가족이 노인부양에 미친 영향은 점차 약화되어, 남아의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에 있어서의 효용성도 역시 감소되었다. 노후 대비를 위해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도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2.2.2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약화는 직계가족 형태가 점차 사라지고 핵가족이 주된 가족형태로 대두된 상황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현재 젊은 세대들은 보통 결혼 후에 부모와 같이 살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며, 부모도 더 이상 굳이 자녀와 같이 살겠다고 하지 않는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지는 경우, 직계가족 형성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20대 대상자 3명은 모두 핵가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들의 부모나 삼촌은 조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이씨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은 작년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어머니는 해마다 번갈아 다른 아들의 집으로 옮겨 다니며 산다. 촌락이 작기 때문에 집도 서로 가깝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촌락에 빈 집이 생겨, 이씨의 할머니는 그 빈집으로 이사하여 혼자 살고 있다. 그래도 이씨의 부모 세대는 모두 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는 혼자 살아도 아들 집에 드나들기 쉽다. 따라서 가족 부양기능은 여전히 발휘된다.

이씨와 그의 형제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 고향을 떠났는데 나중에 다시 촌으로 돌아가 살지 않았다. 농촌은 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었고, 그들은 도시에서 기회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부모들도 그들이 다시 촌으로 돌아오길 원하지 않기에 이들은 나중에도 부모와 떨어져 살 수 밖에 없다.

**이씨(20대, 여):** 우리 가족은 촌의 다른 가족과 달라요. 우리 집의 자녀 셋은 모두 다 고향을 떠났어요. 오빠와 동생은 꼭 집과 가까운 곳에 취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요즘은 교통이 편리해져서 어디로 가도 금방 고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일단 좋은 일자리를 찾아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부모님 집에 가지 않으면, 부모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자식의 집에 몇 달 있다가 다른 자식의 집에 놀러 가면 된다고 하고요.

이씨의 가족을 통해, 교육으로 인해 농촌 청년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80년대부터 대학 진학시험이 다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고, 이에 농촌의 청소년들에게도 비교적 공평한 진학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는데, 농촌의 청소년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농촌을 탈출하여 도시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들도 대학입시를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생각하였으며,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길 바라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은 국토가 너무 넓기 때문에 자녀들이 졸

업하고 나서도 굳이 고향 근처로 돌아갈 필요도 없다고 여긴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따라서 이주하거나 멀리 떨어져 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그리고 고향생활이 더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고향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다. 특히 농촌에서 살던 이들은 도시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 삶이 불편해질 수 있다. 최씨(30대, 여)의 조부모님은 농촌에 살고 있는데 큰 아버지가 공군으로 늘 다른 도시에 있어서 조부모를 부양할 수 없다. 그의 아버지는 둘째인데, 고향에 살지 않기 때문에 노인을 보살피 줄 수 없다. 그래서 최씨의 삼촌만이 조부모를 돌봐 줄 수 있으며 조부모는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과거 최씨의 부모님이 잠깐 함께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조부모가 이를 불편하게 여겼다. 최씨 부모의 집은 6층에 있으나 엘리베이터도 없어 할머니가 오르내리기 어려웠고, 언어도 통하지 않아 주변사람들과 소통하기도 어려웠다. 최씨의 부모는 노인을 부양하고 싶었지만, 노인이 도시생활에 적응할 수 없어 할 수 없었다. 중국 농촌에서는 노인들이 보통 지방언어만 사용할 줄 알고 표준어로 말하기 힘든 것이다. 이와 같이 비씨(40대, 여)의 시부모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비씨(40대, 여):** 시부모님께서도 아직 저희와 함께 사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그분들은 여기 살기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저야 상관없죠. 제 책임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분들이 가끔씩 여기로 놀러 오셨는데, 딱히 할 일도 없고 나가서 얘기를 나눌 사람도 없었어요. 생활습관이 다르기도 하고. 지금은 아파트가 고층이라 노인들이 외출하기에 불편하기도 하고.

장씨(20대, 남)의 부모는 현재 고향에 거주하고 있고 딸 2명도 함께 살고 있다. 아들은 곁에 없지만 딸들과도 잘 지내고 있다. 그들은 고향에 친숙한 사람들이 더 많고 관계망이 더 넓어서, 앞으로도 고향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다.

**장씨(20대, 남):** 나는 누나가 2명 있는데 그들은 모두 부모님과 같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누나들이 평소 자주 부모님과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해요. 나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님은 만약 나와 같은 도시에 산다면 그분들이 그 도시에 집을 다시 살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고향에 살기를 더 원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관계망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편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시에서는 주로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아파트와 같은 고층 건물에서 사는 것은 노인의 외출에 불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농촌보다 훨씬 제약되기 때문에 그들은 집에 갇힐 확률이 높다. 또한, 농촌생활에 익숙한 노인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 이들은 도시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농촌에 있으면 농사라도 지을 수 있는데 도시에 가면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도시에서 살게 되면 새로운 언어 환경에 처하게 되고 표준어(북경어)를 못하는 노인이라면 의사소통도 문제가 된다. 이것은 노인에게 스트레스가 되며, 고층 아파트에서 이들은 바깥 출입을 더욱 싫어하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향에서 쌓아온 연대관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연대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힘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노인은 고향의 집에 남기를 선호한다.

20대와 30대 인터뷰 대상자들은 장래에 부모와 같이 살기 불편하다는 생각도 한다. 여성들은 고부갈등을 우려하여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데, 남성들도 가족의 화목을 위해 따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족 갈등 및 세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젊은이들은 핵가족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양씨(30대, 남):**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여자 친구가 이런 나의 생각을 알게 된 후 너무 속상해했어요. ‘왜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해?’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 갈등이 생겨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고 해요. 서로 다른 집에 살거나 아니면 같은 도



시의 가까운 데 집을 하나 더 구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도 있어 오히려 더욱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지금 20대와 30대는 개인공간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부모의 간섭이 자신의 가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여 부모와 동거하는 일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그들의 부모 세대도 역시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중시하기 시작했으며,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같이 살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진씨(50대, 남)는 노인들은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으며, 자식들도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녀가 결혼 후, 타인에게 의지하기보다,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서로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는데, 같이 살 경우 쉽게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가 스스로 핵가족을 선호하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도시에 거주하는 부모들은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져도 자녀와 살기 보다는 양로원으로 가겠다는 의향을 비치기도 한다. 그들 자신이 자녀의 부담이 되기 싫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들이 양로원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경향으로, 가족의 부양기능은 점점 약화되며 가족 외의 기관으로 전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에서 아들의 노인부양가치는 약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씨(40대, 여):** 나중에 나이가 들면 움직일 수 있을 때는 내 집에서 살 건데, 몸 상태가 나빠지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양로원으로 갈 거예요. 지금 자식이 한 명만 있는데 나중에 그 애에게 부담이 많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아이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양로원으로 가서 살 거예요.

**장씨(50대, 여):** 나와 남편은 독립적인 능력이 있으면 딸의 집에서는 안 살 거예요. 나중에 진짜 나이가 들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어 딸이 우리보고 오라고 하면 가도 좋지만, 만약 그 애가 너무 바빠서 우리를 챙기지 못하면 우리는 양로원으로 갈 거예요.

**양씨(30대, 남):** 여자 친구는 외동딸이어서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자신들과 가까운 데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여자 친구 집안 형편은 꽤 좋은 편이어서 그녀의 부모님은 나중에 양로원으로 가겠다고 하시고, 여자 친구도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들을 양로원으로 모시면 된다고 해요. 그곳은 비용은 많이 들지만 시설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연령대 친구도 만날 수 있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부모님이 나이 들면 자녀의 돌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같은 집에 살면 가정부라도 고용해서 보살펴 드리면 노인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인터뷰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한편으로는 자녀의 진학, 자아개발로 인해 부모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가 생활습관과 연대관계 때문에 고향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녀들은 세대갈등 때문에 부모와 같이 살기를 피하려고 하는데, 부모는 가족기관 외에 양로기관이 있어 가족에게만 기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가족의 구조의 핵가족화는 가속화된다. 이런 핵가족의 형성으로 가족이 노인부양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가족의 부양기능은 약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중국 도시의 노인시설이 점점 보완되고 있어서 많은 이들이 양로원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는 농촌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일이다. 광범위한 농촌지역에서 좋은 양로시설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낮으며, 시설이 있어도 농민들은 많은 돈을 들여 양로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다. 그들은 향후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자녀가 돌봐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특히 지금 많은 농촌에서 노인과 아이만 남고 청년들이 외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는 몇 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노인들은 농사짓거나 막노동을 하면서 손자, 손녀도 키워야 한다.

요컨대, 소자녀 가족 형성으로 가족 부양기능이 점점 약화되면 전통 남아선호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대비 요구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직계가족 형태의 쇠퇴와 핵가족에 대한 선호경향의 강화는 자녀가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도 약화되고 있다. 또한, 노부모의 경제적인 독립으로 딸이나 아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 향후에는 아들이 노인부양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줄어들어 딸과의 차이가 크지 않게 될 것이다. 아들의 노후 보장 효용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노후 생활의 보장을 위해 아들을 낳으려는 경향도 약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3. 남녀 경제효용가치 격차의 감소

#### 3.1 남성결혼비용의 증가

양육은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이다. 가족의 물질적, 정신적 자원 제공을 통해 아이들은 기본적인 생리와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자녀가치의 변화에 따라 자녀양육에 있어서 간단한 물질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족의 자녀양육에서의 역할은 다양해졌고, 다자녀의 양적 양육보다는 질적 양육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양육기능의 변화는 자녀의 효용가치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효용가치의 상호작용이 남아선호사상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자녀양육에는 여러 비용이 포함된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투자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는 교육비용과 결혼비용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최근 결혼 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젊은이들 대부분은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결혼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사람은 남자들이기에, 이는 남성의 가족이나 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남성의 결혼 비용 증가는 여아 선호를 낳기도 한다. 이에 남아의 경제효용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남아선호경향의 약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지금 중국에서 한자녀 세대의 잉여남성 문제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여성부족 현상 아래 경제적 조건이 좋은 남성이라면 결혼이 어렵지 않지만,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면 결혼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현재 남성들은 여성들이 요구하는 높은 결혼조건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값이 크게 상승하여 남자의 결혼 문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박씨(30대, 남):** 지금 결혼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죠. 집 문제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나를 위해 돈을 준비하고 계신데, 전부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작은 집을 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다들 좋은 생활을 추구하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죠.

**양씨(30대, 남):** 지금 집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죠. 여자 친구의 유일한 결혼 조건은 바로 집이에요. 이것이 기본 조건이래요. 나는 차나 집이나 앞으로 다가질 생각이예요. 다시 간문제죠.

현재 한자녀 세대 여성들은 결혼과 관련,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는 중국의 시장경제 체제의 영향으로, 여성들은 결혼에 대해 매우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사랑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오씨(20대, 여):** 결혼 할 때 대부분의 비용은 남자 쪽 집에서 지불해야죠. 지금 다 그렇잖아요. 남자가 집과 차가 없으면 결혼하기 힘들어요. ... 선을 볼 때 나보다 조건이 안 좋은 남자면 당연히 안 가죠.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녀의 가치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독녀가족에게 딸의 가치는 더욱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딸의 결혼조건에 있어서도 높은 요구를 하게 된다. 그러나 20대와 30대 남성들은 아직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 결혼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들은 그들을 위해 돈을 모아 집을 구매하는 예약금이라도 지불해 주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높은 결혼비용은 부모와 가족에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큰 문제가 되었다.

장씨는 현재의 결혼 부담은 자신이 결혼할 때와 비교하면 커졌다고 말한다. 당시 결혼비용은 한 가족에게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삶의 질이 높아져 모든 것을 최대한 좋은 것으로 마련해야 하기에, 아들이 있는 월급쟁이 부모에게는 큰 부담이다. 따라서 현재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기커녕 부모가 계속 자녀를 위해 지원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장씨(50대, 여):** 아들을 키우면 결혼 할 때 집도 준비해 줘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결혼할 때에는 결혼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집만 있으면 되었는데 지금은 집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어요. 어떤 집인지, 도시에 집이 있는지 다 따져야 돼요. 예전에는 예금도 천원 밖에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20만원까지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금이 많으면 부모로서 체면이 더 있죠. 지금 보통 월급쟁이에게 아들 하나 키우기란 힘들죠. 대학교육도 시켜야 하고 집도 사줘야 하고 예금도 준비해야 하고. 부모가 월급쟁이면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아서 결혼비용 부담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전통가족에서는 부모가 나이 들면 자녀가 부양의무를 담당해야 했는데, 현대가족에서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난다. 아들을 키워도 향후 경제적으로 기대하기커녕 돈을 더 많이 들이게 된 것이다. 이는 아들이 가족에게 제공할 경제적 효용가치를 떨어뜨린다. 이러한 결혼부담 때문에 현재 20대와 30대들은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 아들을 키우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데, 개인주의 의식이 강한 20대와 30대는 이런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

**최씨(30대, 여):** 예전 같으면 아들 둘이 있으면 엄청 기뻐할텐데. 지금은 아들이 둘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고 아주 부담스러워요. 결혼식을 두 번 올려야 하는데, 모든 것을 아들 두 명을 위해 준비해야 돼요. 내 친구 중 하나는 이미 아들이 한 명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임신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또 아들이래요. 그 친구는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친구는 나에게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들 둘을 어떻게 키워?’ 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친구도 둘째를 가졌는데 그 전에 원래 둘째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딸이면 주저 없이 바로 낳을 텐데, 아들이면 나중에 화장품도 살 수 없고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돼요. 아이를 위해 돈을 모아야죠.

**이씨(20대, 여):** 각 집마다 아이 한 명만 낳을 수 있잖아요. 벽에서 ‘생남(生男) 생녀(生女) 다 같다’, ‘한 집에 하나만 낳은 게 좋다’ 등 구호를 써놨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기도 해요. 아들을 낳으면 그가 결혼할 때 집을 사 주어야 하는데. 농촌에는 집을 지어주고 결혼식을 올릴 때도 대부분 돈은 남자가 내야 돼요. 여자 집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담이 없어 여자는 ‘招商은행’과 같죠.

현재 한자녀 세대의 아들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 비용 부담 때문에 아들이 둘 있는 것은 예전처럼 기뻐할만한 일이 아니다. 이런 부담감은 남아선호를 여아선호로 바꿀지도 모른다. 미혼자들은 나중에 아들이 자신에게 줄 부담을 걱정하면서 여아를 선호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여자도 가족부양 등 경제효용가치가 늘어남에 따라 딸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곽씨(30대, 남):** 이상 자녀수는 2명이에요. 성별은 상관없는데 사실은 여자면 더 좋겠어요. 나는 자녀가 나처럼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는 딸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들을 낳으면 부담이 너무 커요.

위의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듯, 현재 ‘80후’ 세대는 자녀의 양육문제도 걱정하고 있지만 자녀가 자신에게 줄 많은 부담이 개인의 삶에 끼칠 영향을 걱정하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현재 한자녀 세대가 자녀의 양육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중요하게 여김을 엿볼 수 있다. 예전의 부모들은 자신이 아무리 못 살아도 모든 것을 자녀에게 바쳐야 한다고 생각한 반

면, 현재 한자녀 세대는 자녀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도 소홀히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남자의 결혼 비용이 증가하니 남아 낳기는 점점 부담스러워지며, 딸을 원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 양태를 보여 그들의 남아선호의 경향도 변하기 시작했다.

## 3.2 여성의 경제적 효용가치의 증가

자녀의 경제적 효용가치는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 농촌에서는 남아를 가족의 중요한 노동력으로 여겼고, 부모의 경제적 부양에 큰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식했다. 그리고 부모의 노후 생활에서 대부분은 아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담당하여 딸보다 더 많은 경제적 효용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졌다. 이것은 과거에 여성의 낮은 교육수준과 사회지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3.2.1 소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의 증가

개혁해방 이전 중국은 다자녀 가족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정치 경제적 환경 속에서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교육에 투자할 여력도 크지 않았다. 진씨(50세, 남)가 고등학교를 다녔을 당시는 마침 문화대혁명 시기여서, 그는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일하기 시작했다. 진씨에 따르면 그 당시는 학교에 있었어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일찍 학교를 나가 노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진씨(50세, 남): 그때는 가족마다 보통 자녀 5, 6명이 있었어요. 대부분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다녔으면 그만이었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집안이면 아들에게 공부 기회를 더 많이 몰아줬죠. 학교를 나간 후에는 바로 노동해야 했죠. 나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15살에 바로 일하러 나갔어요. 농촌에서는 생산대(生産隊)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공분(工分)<sup>6)</sup>을 따야 했죠. 나도 학교 다닐 때, 주말이나 방학 때는 생산대 노동에 참가하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

어야 했어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진씨는 어린 시절부터 문화대혁명의 영향을 받았다. 당시 중국에서는 계획경제체제를 시행중이었고 농업이 주된 생산방식이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이라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지식분자’ 등 고학력자들은 모두 다 농촌으로 돌아가 노동을 해야만 했다. 당시 노동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간주되었고, ‘지식분자’들의 지위는 크게 떨어졌었다. 학교에서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지 못하여,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 중시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열악한 조건 하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다자녀의 부담으로 자녀들은 모두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 여성의 교육문제는 더욱 소홀하게 되어, 교육 기회는 남성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다.

**장씨(20대, 남):**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학교를 다니기 어려워서 초등학교까지만 다녔대요. 그때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서 땃돌질을 해야 했는데,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었대요. ... 그나마 아버지와 삼촌들은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고모들은 거의 다 문맹(文盲)이에요.

**곽씨(30대, 남):** 우리 아버지의 누나들도 모두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아버지 혼자 학교에 갔어요. 외할아버지 쪽도 엄마와 이모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여자가 학교를 다녀도 소용없다고 했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들은 딸보다 교육 받을 기회가 더 많았다. 이런 점에서 남녀에 대한 차별은 전통적으로 남자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는 여전히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남자는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요 책임을 담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남아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여자보다 훨씬 높은 상황은 남아선호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

6) 195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의 노동량과 임금의 계산 단위. 노동 점수.



이렇듯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여아는 교육의 기회를 자주 상실한다. 이런 현상은 남성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와 맞물리는데, 남자는 가족의 지지로 더 많은 교육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여자는 남자를 보조해야 하며, 자신의 사업이나 직장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런 인식 속에서 여성은 굳이 좋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결혼과 안정된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몫이라고 간주된다. 개혁개방 과정 속에서 사회는 여전히 전환기에 있기에, 이러한 차별적 인식은 잔존할 수밖에 없다. **최씨**의 어머니는 딸의 교육을 중시하지만 여자에게 높은 학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최씨(30대, 여):** 나는 대학입시 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재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우리 엄마는 여자는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하고, 젊음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여자는 빨리 시집가고 취직도 해야 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시간 허비하지 말라고. ... 그런데 지금 내 동생은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까지 공부하려고 계속 집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동생은 그냥 두고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시간 낭비 같은 소리도 없고요.

위와 같이 여성에게는 젊음이 더 중요하고 학력보다 결혼이 더 우선한다는 생각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여준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교육열과 ‘한 자녀’ 정책으로 가족 형태가 변화하는 상황은 이런 인식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씨의 가족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씨의 가족도 한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씨의 부모는 이씨의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부모는 가족에게 ‘인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자녀의 교육을 매우 중요시한다. 이씨의 오빠는 현재 대학원을 졸업하여 취직하였고 동생도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였다. 이씨도 현재 한국의 대학원에서 공부중이다.

**이씨(20대, 여):** 교육에 있어서 부모님은 우리 셋이 공부하기를 원하면 모두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어도 학교를 못 다니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부모님도 나에게 학교 가지 말라

는 소리는 안 했어요. 이런 면에서는 별로 차별이 없었어요. 심지어 지금 내가 유학까지 오는데도 부모님이 지지가 컸어요. ...나는 유학은 가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돈은 얼마든지 써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이씨의 부모는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되도록 좋은 교육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 이씨 부모의 차별 없는 자녀 교육방식은 이씨 자신의 경제적 효용가치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씨는 나중에 자신의 사업도 하려고 하며, 미래의 개인적 성취에 대해서도 큰 욕구를 가지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대학입학시험 재개 및 국가의 교육 강조에 따라 중국인들은 자녀교육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히 농촌의 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교육 기회를 통해 농민 신분을 벗어나 도시로 진입하여, 더 좋은 사회적 지위를 갖기를 원한다. 또한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모들 간에도 교육열이 높아지게 되었다. 장씨(50세, 여)는 외동딸 하나만 있는데, 딸 교육에 쏟는 관심과 정력은 자신이 어렸을 때와 비교하면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장씨(50대, 여):** 당시 우리 부모님은 교육에 대해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 있었어요. 지금은 모든 부모가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요즘 부모들은 아이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여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어떻게 해야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는지 다들 고민해요. 예전에 우리는 공부 못 하면 부모도 별 소리를 안 했고, 교육에 많이 투자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선생님을 찾아서 상담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자녀가 공부하는 기간에는 공부에만 집중시키고, 어떻게 해야 아이가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는지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도 하고, 투자도 아끼지 않고 많이 하게 돼요. 한 자녀라서 많은 조건이 좋아졌죠.

현재는 소 자녀 가족 형태로 변화되어 한 자녀가 가족 모두의 희망이 되면서 한 자녀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다. 그리고 한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는 더욱 집중되어 딸에게나 아들에게나 모두 충분한 교육기회가 제

공된다. 이렇듯 남녀에게 발전을 위한 공평한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은 개인의 가치 향상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현재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교육조건을 제고해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도 한다. 적씨(40대, 여)에게는 딸 2명이 있는데 딸들이 좋은 학교에 다니도록 이사도 했다.

**적씨(40대, 여):** 처음에는 농촌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4년 동안 살았는데, 나중에는 딸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주기 위해 이사를 했어요. 시내에서 좋은 학교와 가까운 데에 새 집을 사고 나중에 아이가 좋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했지요. 지금 아이들의 의무는 공부밖에 없어요. 우리 때처럼 부모를 돕기 위해 학교 끝나고 농사일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20대, 30대의 부모세대들은 자녀에게 공부를 제대로 시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는데, 현재 젊은 부모들은 자녀의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는 공부만 잘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남과 다른 여러 재능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아 개발에 몰두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부모들은 자녀가 출발점부터 남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이렇듯 높은 교육 조건을 갖춰줘야 한다는 압박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이런 스트레스는 현재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지금은 ‘낳을 수는 있어도 키울 능력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시대인 것이다.

**최씨(30대, 여):** 예전에는 아이 한 명을 더 낳아도 젓가락 한 개만 보태면 되었는데,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 데 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해요. 내 아이가 피아노나 춤을 배우고 싶으면 다 해 줘요. 피자 하나 먹고 싶으면 38원이라도 사 주거든요. 둘째를 낳아도 그렇게 키워야 할 텐데 능력이 없으면 함부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어요.

위와 같이 능력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는 자녀를 키우는데 매우 높은 비용이 든다. 현재 한자녀 세대에게 자녀를 한 명 더 낳는 것은 전체 생

활의 질을 바꾸는 일이다. 소자녀 가족 형태 아래 교육에 대한 강조를 통해, 여성들도 학력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남아선호사상을 가졌던 가족에게도 여성의 교육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적 수입도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나 가족 내에서의 지위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 중국의 ‘잉여여성’의 결혼 문제도 한자녀 세대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결혼을 매우 중시하는 중국사회에서 여성이 30세 이전에 결혼을 못한다면 ‘잉여여성’이라 불린다. 많은 ‘잉여여성’은 고학력에 좋은 일자리도 있지만, 결혼대상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 결혼을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보다 좋은 조건의 남자를 선택하려는 데서 어려움을 맞는다.

**오씨(20대, 여):** 초등학교 친구 중 하나는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대졸이고 지금 집 근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1년 동안 10만원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조건이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작은 지역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찾기도 너무 어려워 아직 결혼을 못 하게 됐네요.

출생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농촌에서는 잉여남성이 더 많은 편이다. 여성은 자기보다 경제적 조건이 좋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며 농촌 남성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우 선택의 여지가 더욱 줄어들어, 결혼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물론 우려되는 일이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상승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 3.2.2 여성의 지위 상승

‘한 자녀’ 정책 하에 가족의 교육 자원이 한 자녀에게 집중되면서 여아 교육에 대한 책임도 강해져 여아에게도 더욱 평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되게 되었다. 이제 자녀교육에서는 질이 강조되게 되었고, 여아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학력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경제수입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지위와 가정 내 지위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중국에서는 가부장제의 ‘남존여비’ 사상의 영향으로 여성의 지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특히 남아선호 경향이 강한 세대에서는 여성의 종속적 지위가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최씨(30대, 여)와 양씨(30대, 남) 가족은 모두 가부장적 분위기가 강한 편이다. 양씨의 부모는 농민이어서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바깥 농사일도 도와주어야 한다.

**양씨(30대, 남):** 산둥성에서는 예전부터 보통 여자들이 집안일을 했어요. 남자는 밥도 안 하고 여자가 밥상을 다 차려야 했지요.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나가서 농사일을 하면 엄마도 따라서 같이 도와주어야 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엄마는 가사일도 해야 했고. 엄마는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양씨의 어머니는 가사 일을 자신의 몫이라 생각하여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긴다. 이러한 ‘당연하다’는 생각은 바로 가부장제 체계 하에서 여성들에게 형성된 복종 의식이다. 남자는 밖에서 일해야 하는 반면, 여자는 집안일을 잘 해야 하는 인식이다. 최씨의 집에서는 일을 결정할 때 아버지가 주요 역할을 한다. 아버지가 최씨 유학을 반대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몰래 그녀를 위해 유학 수속을 해줬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들키자, 아버지는 화를 많이 냈다고 한다.

**최씨(30대, 여):** 우리 집에서는 보통 아버지가 결정해요. 우리 엄마는 그를 따르기만 하고요. 나는 늘 일본으로 유학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계속 동의하지 않으셨고 내 신분증도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고집이 세서 결국은 우리 엄마는 나와 타협했어요. 엄마는 나를 위해 몰래 유학수속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알게 되셨고 크게 화를 내셨어요. ‘어떻게 호주의 동의도 없이 이럴 수 있느냐?’ 그때 집안에서 부모님은 엄청 싸우셨지요. 그때 다 우리 아버지가 결정 내리신 거예요.

‘호주(戶主)’는 중국 사회에서 바로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기반이다. 최씨의 아버지는 호주의식이 강하며, 자신이 가족의 핵심이고 중요한 일의 결정자라고 생각한다. 최씨의 집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가족 내에서 평등한 지위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최씨의 어머니는 학교교사였기에 비교적 독립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고, 이에 몰래 딸을 위한 유학수속을 해준 것이다. 최씨의 말에 따르면 그때 그의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갈등을 많이 했다고 한다. 한편으로 그의 어머니는 ‘지식여성’으로서 최씨의 앞길을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면도 있어서 딸이 앞으로 시집 못 갈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최씨 어머니의 이런 모순적인 생각은 그 세대 여성들이 가족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하였으나, 그 속박을 온전히 벗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이는 바로 사회 전환 과정에서 낡은 질서를 버리지 못한 채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 때 맞닥뜨리는 문제이다.

위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 남아선호가 강한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가사노동을 모두 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 내 결정권 및 금전 관리의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남아선호사상이 약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가부장 의식도 약하고 여성들도 비교적 평등한 지위를 지니고 있다. 여성들도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광씨(30대, 남)는 사천성 도시 지역에서 출생했다. 그에 따르면 그의 주변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을 찾아보기 힘들고, 보통 다 ‘독자’, ‘독녀’호들이다. 그의 부모님은 퇴직 전 모두 일을 하셨다.

**광씨(30대, 남):** 우리 집에서는 보통 아빠가 밥을 해요. 가끔씩 엄마가 하시기  
도 하지만 맛이 별로 없어요. 빨래는 엄마가 하고 아빠는 안 해요 ... 누군  
가 시간 있으면 하죠. 청소도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해요.

진씨(50대, 남)와 장씨(50대, 여)가 거주하는 지역도 남아선호사상이 약한 편이다. 진씨의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며 가사 일은 분담한다. 진씨는 집에서 자신은 때때로 아내보다 지위가 낮게 느껴졌다고 한다. 진씨

는 아내가 가족에게 가져다 준 경제적 기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도 가사 일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서 우리는 여성의 경제 효용가치가 높은 경우 가족 내의 지위도 높아질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장씨(50대, 여)도 현재 한 음식점에 관리직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남편만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도 일자리를 가져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한다.

**진씨(50대, 남):** 아내가 밖에서 일을 하면서 내 부담은 줄어들었죠. 아내가 밖에서 일하는 걸 지지해요. 그의 삶도 충실해지고. 아내가 평소 매일 출근해야 되니 나도 집안일을 좀 분담해야죠. 나는 대남자(大男子)주의<sup>7)</sup> 같은 생각은 없고 여성을 존중해요. 평소에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해요. 빨래도 가끔씩 하지만 아내는 내가 깨끗하게 못 한다고 야단을 쳐요.··· 보통 결정은 둘이 상의해서 하죠.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누군가 옳은 말을 하면 그의 방식대로 해요.

**장씨(50대, 여):** 내가 일하면 마음에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나도 돈을 벌고 경제적인 능력을 가져야죠. 내가 왜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 써야 돼요? ... 지금 여성들은 다들 비교적 독립적으로 생활하여 가족 내에서도 지위가 높아졌어요. 가사 일은 다들 나누어서 해야죠. 모든 가사 일을 다 내가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은 자발적으로 가사 일을 분담해 주고 나 혼자만 하게 하지 않아요.

여성이 자기의 일자리를 갖게 되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나누어 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족 내에서 평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여성들이 더 이상 사회와 분리되지 않고 자신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가족에만 종속되도록 하지 않으며, 자신을 가족 바깥의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기도 한다. 인터뷰 대상자 중에는 자신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 적씨와 비씨는

---

7) 남성우월주의, 가부장적 남성주의를 뜻한다.

모두 자신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기를 원한다. 그들은 가정 내에서만 구속 받고 싶어 하지 않으며 독립 의식이 강하다.

**적씨(40대, 여):** 나는 여자가 밖에서 일을 좀 하고, 독립적으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 없이 맨날 집에만 있으면 사회와 단절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남편은 내가 돈 많이 벌어오는 걸 바라지는 않지만 나는 나가서 일하기를 원해요.

**비씨(40대, 여성):** 나는 가정주부만 하고 싶지 않아요. 일이 힘들고 지칠 때는 집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싫을 걸요. 나는 어떻게든 일을 찾아야 해요. 집에만 갇혀 있으면 사람이 사회와 분리돼요. 반드시 사람과 소통해야 하고 사회와 접촉해야 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청소와 요리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비씨와 적씨는 모두 예전에 일자리를 잃어버려 한 동안 가사 일만 하였다. 그들은 당시 자신이 바깥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었고, 집에 있는 것도 너무 무료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사회와 소통하며 자신의 가치도 인정받기를 원한 것이다. 자신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 자존감도 높아진다. 또 그에 따라 자신의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달리 생각하게도 되는 것이다.

40대와 50대 여성들은 더 이상 남성에게만 의존하지 않으며, 가정 내에서 발언권과 의사결정권을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가족에게 큰 기여를 하지 못하지만, 독립적인 의식을 갖고 경제적 부담을 나누어지는 것으로 가족 내 지위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현재 20대와 30대 여성은 상대적으로 고학력을 갖게 되어 경제적으로 가족에게 기여하는 바가 더 커짐에 따라, 더욱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남성들 역시 이들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하는데 책임을 느끼고,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

최씨(30대, 여)는 일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대학 강사를 했다. 지금은 또 한국으로 와서 박사학위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



최씨가 현재 쓰는 학비와 생활비는 모두 본인이 번 돈이며 남편의 돈을 쓸 생각은 없다. 그는 결혼 후에 부모에게도 큰 돈을 몇 번 부쳐 주었다.

**최씨(30대, 여):** 나에게 가족 부양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나는 좀 독립적인 사람이라 남편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석사졸업 후 잠깐 취직했는데 나는 부모가 내 일본유학시절에 대 주신 돈을 갚을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별도로 의하지는 않지만요. 나는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는데 시집가서 다른 집에 봉사하는 것처럼 일을 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시부모님은 양로보험이 없어서 매년 돈을 부쳐드려야 하는데, 왜 우리 집 돈을 남편의 집으로만 보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당신은 나와 아이를 위해 돈을 벌고 있잖아. 그럼 내가 번 돈은 내가 어디에 쓰는지 신경 쓰지 마’라고 했어요. 드디어 나는 우리 엄마에게 10만원을 보냈어요.

최씨는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양 능력도 가지고 있다. 남편의 반대에 불구하고 부모에게 돈을 부칠 수 있는 것은 최씨 본인이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씨는 가족 내 지위가 남편과 비교적 평등하여 의사결정권도 갖게 되었다. 현재 최씨가 한국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이유도 가족의 숙박으로부터 탈출하려는 노력이다. 그는 과거에 석사 학위 취득 후 직장을 다니며, 가사 일도 해야 했고 딸도 돌봐야 했다. 그는 자신이 당시 ‘숨도 쉴 수 없고 다르게 살고 싶다’고 느껴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도망쳤다’고 했다.

여성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상승하여 가족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달라지고 가족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들자, 여성은 가정 밖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게 되었다. 현재 남성들 역시 가족 부양 부담이 크기에 결혼 대상자는 직장을 가지길 원한다. 광씨(30대, 남)는 주변 여성들이 다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혼자 돈을 벌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것이기에 자신의 아내도 자신만의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곽씨(30대, 남):** 내 아내는 당연히 나가서 일을 해야죠.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자기가 돈을 벌어야 돼요. 가족 구성원 중 만약 한 사람만 돈을 벌면, 안 버는 사람은 집에서 발언권도 없어지게 돼요. ...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돈을 보태줘도 되고, 나도 이해할 거예요.

곽씨는 앞으로 아내가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나누어지게 되면, 아내 역시 가족 내에서 힘을 더 갖게 된다고 여긴다. 여기서 ‘힘’은 바로 가족 내 의사 결정권, 부(富)의 지배권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의 ‘독녀’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비록 부모가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해도 ‘독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 역시 ‘독녀’에게 경제적 독립을 요구한다. 이는 여성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하고 있으며 경제적 효용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의 경제적 효용가치 상승에 따른 여성 지위의 상승은 남성들도 가사 일에 참여하게 만들고 있다. 여성이 직업을 가지게 된 와중에 가사 일을 할 시간이 줄어들자, 남성들은 가사 일을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은 전통가족에서 여자만 집안일을 한다고 생각한 의식을 변화시켰고, 남녀의 가족 내 분업 및 역할도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0대 곽씨와 양씨는 모두 여자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결혼하게 되면 아내와 집안일을 나누어서 하겠다고 한다.

**양씨(30대, 남):** 결혼 후에는 집안일을 도와주어야죠. 나와 여자 친구는 앞으로 다 교사가 되길 원해요. 그때는 시간 상 여유도 생기고 집안일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친구에 비해 내가 밥을 더 잘 해요. 내가 그보다 나이도 많은데 내가 챙겨주어야죠.

요컨대 교육열로 인해 소 자녀 가족의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남으로 인해, 여성의 교육수준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비록 현재 여성에게 교육과 취업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성은 더 이상 남자에 의존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가족을 벗어나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사회적 지위도 갖게 되었다. 예전에

도 중국 가족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았지만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에는 제한이 많았으며, 임금도 남성과 차이가 많았다. 그렇지만 현재는 고학력 여성의 증가에 따라 여성에게 제공되는 취업 공간도 넓어졌으며 임금도 훨씬 상승하였다. 또한 남성이 여성에게 가족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바라게 되면서, 여성의 가족 내 지위도 상승하고 있다. 여성의 가족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가 높아지자 여성의 남성과의 경제적 효용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의 경제적 가치의 변화는 남아선호사상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출생성비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 4. 소자녀 가족이념에서의 자녀효용가치의 변화

중국은 ‘한 자녀’정책 실행 이후 소자녀 가족형태가 형성되었다. 이런 가족규모 변화에 따라 자녀효용가치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여기서는 자녀의 보험효용가치, 감정효용가치와 사회효용가치를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효용가치들의 변화가 남아선호사상 약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 4.1 보험효용가치의 감소로 인한 가족의 불안정

위의 내용을 통해 현재 출산의 가계계승 욕구와 경제적 부양욕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출산 욕구는 위에 제시했던 욕구구조의 다른 측면으로 전이되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를 통해 현재 부모들의 아이에 대한 ‘감정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는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에, 자녀의 효용가치도 그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녀의 보장효용은 전통 다자녀 가족 형태를 통해 뚜렷이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다자녀 가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형태이며 부모에게 비교적

강한 안정감을 준다. 가족은 자녀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연대를 강화하며 더욱 안정될 수 있다. 다자녀는 가족 안정에 더 많은 보장 효과를 더해주며, 부모로서도 아이를 모두 잃을 위험성이 적다. 따라서 다자녀 가족에게는 자녀의 보험효용이 더 높고 든든한 느낌과 위로를 전해 준다. 또한 과거와 같이 직계가족의 형태를 더 많이 보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들이 노인을 제대로 보살펴 줄 수 있기에 남자의 보장효용도 여자보다 높다고 간주된다.

‘한 자녀’ 정책은 가족에게 소 자녀만을 가질 수 있게 하였고, 이로 인해 자녀의 보장가치역시 떨어졌다. 다자녀가 준 가족의 안정감은 사라지고, ‘독자호’ 나 ‘독녀호’에게 불안정과 위험성이 높아졌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한 명만 있기에 자녀가 사망하면 어떤 보장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 자녀 가족은 이런 위험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자녀가 적은 가족의 연대관계는 쉽게 파괴될 수 있고, 가족이 해체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의 보장효용가치는 약화된 반면, 부모에게 준 감정효용가치는 오히려 상승하였다. ‘한 자녀’정책 아래 자녀 한 명만 있는 상황이 가족 안정에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의식하여, 이들은 자녀를 2명라도 낳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 자녀를 잃은 후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미래의 삶에 형제자매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기도 하다. 최씨(30대, 여)는 남동생이 한 명 있다. 최씨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한 자녀’ 정책의 영향을 받아 아이를 한 명만 낳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오진사고로 인해 자녀가 두 명은 있어야 더욱 안심할 수 있고 자녀들끼리 서로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최씨(30대, 여):** 처음에 우리 엄마는 ‘한 자녀 낳기’ 라는 당의 호소에 응하여 나 하나만 낳으려고 하셨죠. 엄마는 나를 낳은 후 또 하나를 갖게 되었는데, 둘째를 낳는 것은 후진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여 아빠한테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이를 유산시켰어요. 그때 아이는 남아였대요. 아빠가 이 사실을 아신 후에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엄마를 질책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6살 때 유치원에서 건강검사를 받았는데, 내가 후두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내가 얼마 못 사겠다고. 엄마가 너무 놀라서 3일 동안 다른 큰 병원을 찾아다니며 재검진을 받게 하셨죠. 결국 오진이었음이 밝혀졌지만, 엄마는 그일로 너무 놀라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셨대요. 또 내가 혼자라면, 만약 어디가 아프거나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할 때 형제자매도 없으면 고립무원할 거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남동생을 낳았지요.

최씨 어머니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한 자녀’정책은 부모에게 자녀를 모두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을 높인다. 다자녀 가족에게는 자녀 한 명을 잃는 것이 큰 위험이 되지 않지만, 한 자녀만 있는 가족에게는 그 의미가 다르다. ‘독자’, ‘독녀’를 잃은 가족에게는 유일한 기대주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 중국에는 ‘독생자녀’의 의외의 죽음으로 인해, 노인의 부양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독생자녀’를 잃은 노인에게는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경제적 고난이 함께 덮친다. 최근 중국에서는 240여명의 ‘失獨者’가 북경에서 정부에게 배상을 요청한 사건이 있었다. 그들은 ‘국민으로서 우리는 의무를 실행했지만, 이 의무는 상반된 위험성이 있었다. 국가는 우리에게 배상해야 한다.’ 라고 하였다.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근대화를 위해 출산을 억제한 결과 현재 자녀 문제는 가족의 안정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한 자녀’ 정책 아래 자녀를 더 출산한 다른 대상자들도 이상적인 자녀 수로는 2명을 꼽는 경우가 많다. 자녀 한 명이라면 혼자 성장하는 것이 외롭지만, 자녀가 의지 할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더욱 든든한 느낌이 들 것이라는 것이다. 적씨(40대, 여)에게는 딸이 둘 있다. 둘째를 낳은 것은 남아를 갖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적씨는 성감별을 한 적도 없으며, 둘째를 낳은 이유는 앞으로 자녀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광씨(30대, 남)는 외아들이고, 혼자 자라면서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적씨(40대, 여):** 둘째를 낳을 때 굳이 남아를 원한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때는 아이가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자녀끼리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의논할 수도 있고요.

**곽씨(30대, 남):** 독생자는 좀 외롭죠. 무슨 일이 생기면 의논할 사람도 없고. 제일 친한 친구라도 말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형제자매가 있으면 좀 나을 텐데. 그리고 형제자매가 있으면 생활에서도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챙겨줄 수도 있는데.

위의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듯, 현재 자녀 출산에 있어 고려사항으로 가계계승이나 노후 대비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나, 가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고 정신적 의지와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강조되고 있다. 이렇듯 가족의 보장기능 약화에 따라 현재 부모들은 성구별 없이 자녀를 더욱 귀하게 여겨 자녀를 보호하려는 의식이 강해졌다. 특히 ‘독녀’가족에게 딸은 가족의 유일한 보장이기에, 부모는 딸에게도 많은 공을 들이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딸의 보장효용가치도 높아지며 아들과의 차이는 축소되고 있다.

지금 농촌의 독녀가족에는 전통적인 남아선호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일부 농민들은 사회 환경과 개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들이 자아가치 및 자신의 감정적 만족을 중시하기 시작하며, 전통적 출산관념도 점점 변화의 조짐을 보이게 되었다. 현재 중국농촌에서 독녀가족은 아직까지는 ‘소외된 집단’이고 외부로부터의 여러 압력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농촌지역 독녀가족은 남아선호사상 감소되는 선두집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 4.2 감정효용가치의 상승

자녀의 ‘감정 효용가치’란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행복과 기대감을 가리킨다. 중국에는 ‘딸은 부모의 작고 따뜻한 숨저고리다’라는 말이

있다. 즉 딸은 부모의 마음을 더욱 잘 알고, 부모를 세심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딸은 부모에게 더욱 따뜻한 존재이며, 감정적으로는 더 많은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가부장제 아래 딸의 감정 효용가치는 남자가 가문에게 줄 수 있는 자부감과 명예 밑에 가려져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또한 노후 보장에 있어서도 아들에게 더 많이 기대할 수 있기에 아들에 대한 의존 심리가 더 강했다.

자녀의 감정효용가치는 자녀수의 감소에 따라 증대되고 있다. 현재 독생자녀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한 명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한 자녀에 대한 정신적 기대감이 커지고, 자녀와 부모간의 감정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자녀의 감정효용가치는 예전보다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노후의 경제적 의존은 감소하는 반면, 정신적 기대감은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딸의 감정효용가치도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딸들이 부모에 대해 더욱 관심이 갖고, 부모를 돌보는 데에 신경을 더욱 쓰기 때문이다.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성감별은 최근에도 여전히 존재하나, 그들의 의도는 많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장씨(20대, 남)의 어머니는 산부인과 의사이며 자신의 진료소를 개업하였다. 그의 주변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 약해졌지만, 보통 중국인들은 아이를 낳기 전 성별을 보기도 한다. 이것은 남아인지 여아인지 상관없이 그냥 궁금해서 성감별을 하는 것이다. 장씨는 예전에는 아들을 낳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으나,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한다. 그의 따르면 그의 주변사람들은 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장씨(30대, 남):**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특별히 아들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큰 매형은 딸을 너무 좋아해서, 딸을 낳은 후 아주 기뻐했어요. 우리 사촌형도 엄마의 진료소로 와서 성감별을 했는데, 그때 아들이라는 말을 듣자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는 딸을 낳게 되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아내에게 ‘아들이면 나중에 꼭 딸을 낳게 해 줘야 돼’라고 했대요.

장씨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변화는 딸의 효용가치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딸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효용가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 가족에서는 남성의 경제적 부양기능 약화에 따라 여자의 감정적 효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결핍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자녀와 떨어져 생활하게 되자, 정신적 위로와 관심을 더욱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에 여성의 감정적 효용가치는 노인의 노후 생활에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에 노인들에게 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보통 부모에게 더 많은 정신적 위로를 주기 때문에 딸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적씨(40대, 여)가 일하는 곳은 노인의 유언을 공증해주는 기관이다. 그에 따르면 딸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는 노후에 딸이 더 자주 보살펴 주고 아들은 자신을 보러 오지도 않아서, 유산을 딸에게 다 주려고 하는 노인도 많은 편이라고 한다.

**적씨(40대, 여):** 내가 일하는 데는 노인들이 유언을 공증하러 자주 와요. 유언을 공증하러 오는 노인들은 보통 가정에서 불화를 겪는 편이에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나이가 들면서 딸이 더 좋다는 것을 느낀대요. 젊었을 때는 시부모의 영향 때문에 남아를 낳았는데 정말 늙으면 딸의 마음이 더 섬세하다는 생각이 든대요. 또 아들이 자주 밖에 있고 부모를 보러 자주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딸은 한동안 지나면 부모를 보러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지난 번 어떤 어르신이 와서 유산을 전부 다 딸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몇 년 동안 아들이 집에 오지도 않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대요. 그가 제일 필요할 때 딸이 옆에 있었기에, 딸에게 유산을 다 물려주기로 했대요.

적씨의 말을 통해 현재 노인들에게는 경제적 지원보다 감정적인 위로가 더욱 중요함을 볼 수 있다.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기대는 감소하였지만, 정신적 기대는 여전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적씨는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의 부모는 아직 고향인 농촌에 있다. 적씨도 그의 부모처럼 딸들이 자주 보러 왔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의 큰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적씨는 딸이 나중에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적씨(40대, 여):** 나는 경제적으로는 노후 생활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 자녀가 자주 나를 보러 와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딸들이 우리와 너무 멀리 있지 않기를 바래요. 자녀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되도록 가까이 있길 원해요. 지난 번 큰 딸이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고 했는데, 나는 공부하러 가도 되지만 나중에 돌아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국내에 있어야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돌아올 수 있는데, 국외에 있으면 비자나 여권 때문에 복잡하겠죠.

장씨(50대, 여)는 딸이 나중에 그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 너무 멀리 있으면 한 번 다녀가는 것도 힘든데, 한 두 시간 거리면 딸을 보고 싶을 때 바로 갈 수 있다고 한다. 진씨(50대, 남)는 처음에는 아들을 원하였기 때문에 딸이 태어났을 때 조금 실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딸이 더 좋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딸은 따뜻하며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존재이다.

그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현재 부모들은 딸에 대해 더 높은 감정적 기대를 가진다. 현대사회에서 가족들의 연대관계는 점점 약해지고,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특히 부모들은 아들의 경우 자아개발이 더 중요하고 어디로 가든 좋은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자들은 여자보다 고향을 떠날 가능성이 더 높고 부모를 보살피 주기도 힘들다. 반면 딸은 부모와의 감정적 연대가 아들보다도 깊은 편이라 부모에게 정신적 위로를 더 많이 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여성들도 부모를 부양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있다. 장씨(50대, 여)의 남동생은 현재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서 평소에 부모를 보러 자주 올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부모와 가까워서 부모를 보살필 책임을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한다.

**장씨(50대, 여):** 나는 내가 딸이라서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를 보살피 주는 일에는 아들이든 딸이든 다 책임이 있죠. 지금 동생이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더 많이 보살피 드려야죠.

또한, 현재는 소 자녀 가족으로 인해 아이에 대한 관심과 감정적 기대가 높아진 상태이다. 특히 부모가 독생자녀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상황은 예전과는 크게 대조된다. 자녀와 부모간의 친밀성은 더욱 강해졌고, 부모에게 한 자녀가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장씨(50대, 여)는 하나 있는 딸을 위해, 딸이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 해서 만족시켜 주려 노력한다. 장씨와 남편은 보통의 샐러리맨 계층이다. 집안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딸을 유학 보냈다. 그는 딸이 꿈을 이룰 수 있으면 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한 자녀만 있는 가족에게는 자녀 하나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감정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아들과 딸 구별 없이 부모가 모든 것을 바쳐서 키우는 것이다. 한 자녀 가족에서 특히 독녀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며, 감정적 효용가치가 더욱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요컨대 소 자녀 가족에게는 자녀의 보장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자녀에 대한 감정효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딸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감정적 기대감은 이런 점에서 아들보다 높다. 그리고 현재 한 자녀에게 쏟는 부모의 감정과 정력은 다자녀 가족 형태보다 훨씬 크며, 특히 부모가 독녀에게 주는 감정은 아들보다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족의 자녀양육기능의 변화로 인한 자녀 감정효용가치의 변화는 남아선호사상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 4.3 사회적 평가의 효용가치 변화

앞서 검토한 4가지 자녀효용가치는 모두 가족 내부의 효용가치에 속한다. 그러나 자녀의 가치는 가족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가족 외부의 사회로부터 받는 평가도 자녀의 효용가치의 하나이다. 전통적인 남아선

호사상은 보통 가족 외의 사회로부터 온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개인이나 가문의 체면을 위해 남아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자녀를 통해 사회에서 받게 되는 존중과 인정은 내면의 만족감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사회의 평가도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이런 평가는 자아실현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가부장 중심의 사회에서 남아 출산 여부는 한 인간에 대한 평가기준으로도 작용하여, 남아를 가진 것으로 개인의 가치 실현 여부가 판단되기도 한다.

장씨(20대, 남)의 부모도 농촌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장씨의 부모님은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렇게 많은 자녀를 둔 원인은 아들을 가지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다. 그의 부모가 아들을 원한 이유는, 다른 형제들도 다 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체면 유지를 위해 아들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장씨(20대, 남):** 저는 누나 2명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3명이나 낳은 것은 아들을 원했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는 모두 농촌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의 형제자매 가족 모두 다 아들이 있는데, 이는 아버지에게 큰 영향을 미쳐 아버지 본인도 아들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없으면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드신 거죠. 특히 형제들이 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장씨 아버지의 남아선호사상에는 주변인들이 끼친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사회에서 개인은 타인의 행위를 따르거나 타인과 사회가 기대하는 행위를 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개인의 선호도 사회적 기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회에서 아들을 가졌는지 등의 여부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기에 남아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아들이 있어야 남에 뒤처지지 않고 체면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촌락은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주변의 여론조성이 비교적 쉬운 곳이다. 그리고 도시보다 인간관계가 더욱 긴밀하여 타인의 의견 등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로간의 깊은 관계로 사람들은 타인과 서로 쉽게 비교하기도 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은 가계계승의 의식이

강했으며, 또한 이러한 비교심리의 영향으로 자신의 체면을 위해 남아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한자녀 세대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효용가치는 더 이상 자녀의 가계계승 여부에만 달려있지 않다. 오히려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 증가에 따라 자녀의 성공 여부가 부모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이런 자녀의 성공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부모의 자녀 양육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높은 사회적 평가를 얻기 위해 부모들은 자식들의 교육에 더욱 열중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자녀성공에 대한 기대감 역시 더욱 커졌다. 꼭씨는 외동아들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기대가 컸다.

**꼭씨(30대, 남):**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빨리 커서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부모님은 내게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내가 크게 성공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죠. 부모들끼리는 서로 자식들을 비교하고 자랑하고. 내 아들은 이렇다, 내 딸은 저렇다 등 ...

현재 한자녀 세대의 부모들에게는 자녀가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여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주변인 등 사회의 부모에 대한 평가도 아들 출생 여부가 아닌 자녀의 사회적 성공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평가의 변화는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 하에서의 아들 선호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키고, 대신 자녀의 개인적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성 평등적인 사회적 평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여성들도 개인의 성공을 통해 높은 사회적 평가를 얻을 수 있으며 남성들의 우위는 낮아지고 있다. 이에 자녀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가치 변화는 남아선호 경향을 완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현재 가족적 맥락에서 한자녀 세대의 자녀효용가치 변화에 따른 남아선호사상의 변화에 관해서 논의해왔다. 한자녀 세대는 인구, 경제조건에서 특수한 집단으로서 이전 세대와 매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한 자녀’ 정책을 실시 이후 태어나고 개혁개방의 환경 속에 성장했다. 이에 이런 시대적 특징을 지닌 한자녀 세대는 그들 부모세대와 다른 문화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런 새로운 의식관념 속에 한자녀 세대의 가족과 효용가치도 변화를 겪고 있으며 남아선호사상도 다른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독생자녀 세대의 자아중심 사상의 만연은 가족주의 의식을 약화시키고 개인주의 성향을 강화시켰다. 젊은 사람들이 가족과 자녀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의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감소되고 있다. 대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 관념의 약화 역시 가족의 가계계승 기능, 부양 및 양육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둘째, 한자녀 세대의 전통이념 속에서의 자녀효용가치의 약화는 남아선호사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녀의 가계계승과 노인부양의 효용가치는 남아선호의 주요 요인인데, 현재 직계가족 형태는 핵가족으로 변화되어 한자녀 세대가 가족의 가계계승과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 및 책임감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한 자녀’ 정책의 실시에 따라 ‘독녀호’가 증가하면서 가계계승에 대한 의무감도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다자녀 가족은 소 자녀 가족이 되어, 자녀 1인의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은 증가하였다. 부모는 자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의 부양부담을 가족 밖으로 전이시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게 되었다.

셋째, 남성 결혼비용의 증가와 여성 경제효용가치의 상승은 한자녀 세대 남녀의 경제효용가치 격차를 감소시켰으며 남아선호사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출생성비의 효과 중 하나는 남성의 잉여문제

이다. 현재 결혼비용의 상승은 한자녀 세대 남성들을 더욱 결혼시장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남성의 결혼 비용 증가로 인한 가족 부담으로 요즘은 여아를 선호하는 젊은이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남성의 경제적 효용가치의 하락과 맞물려 가족에게 더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 이에 남아선호와 출생성비 불균형이 변화될 또 하나의 요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교육열과 소 자녀 가족 형태로 인해 한 자녀에게 집중적인 교육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딸에 대한 교육도 간과하지 않게 되어 여성에게도 능력개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렇듯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의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지위도 상승하여 가족 부양에 대한 기여도도 증대되었다. 그리고 남성과 함께 여성의 경제적 가치도 인정되면서 가족 내 여성의 지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남녀의 경제적 효용가치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에, 남아선호사상 및 출생성비 불균형도 변화가 기대된다.

넷째, 소자녀 가족이념에서의 자녀효용가치의 변화도 남아선호사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가족에게는 불의의 상황에서 자녀를 모두 잃을 위험이 커졌다. 특히 ‘독생자녀’ 가족은 유일한 자녀를 잃을 위험성이 높아서 자녀의 가족에게 준 보험효용가치는 크게 떨어졌다. 가족이 불안정해지면서 자녀에 대한 감정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서 자녀의 감정효용가치는 상승하고 있다. 자녀수의 감소로 인해, 이제 딸이든 아들이든 모두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성 차별적 대우도 줄고 있다. 아들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가치가 떨어지자, 딸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감정 효용가치가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제 더 이상 자녀와 부모에 대한 사회평가는 자녀의 가계 계승여부에 달려 있지 않으며, 이는 자녀 개인의 발전과 성공에 대한 평가로 전이되고 있다. 남아를 낳았는지 여부가 더 이상 부모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지 않기에, 남아선호사상과 출생성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소자녀이념의 자녀효용가치들은 앞서 언급한 타 효용가치처럼 남아선호사상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 했지만 간과할 수 없는 요인들이다.

요컨대 가족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한자녀 세대의 자녀효용가치 변화는 남아선호사상의 약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중, 자녀의 가계 계승, 노인부양, 경제효용가치의 변화는 남아선호사상을 약화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남아선호사상은 중국의 심각한 출생성비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의 약화는 출생성비 불균형 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의 성비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한국과 같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중국사회에서 가족은 개인의 삶에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 가부장제는 해체되지 않아 중국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과 빈곤 계층에서 남아선호사상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국의 출생성비 불균형을 완화시키려면 이러한 지역과 집단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관념의 전환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것이 아니며, 여러 선행 과제들이 요구된다. 따라서 중국에서 단시간 내 출생성비 불균형의 문제가 해소되기는 요원하며, 장기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왕려위, 2007, <한국출생성비 불균형문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위논문.
- 조희선, 2005, <무슬림 여성>, 명지대학교 출판부.
- 김대성, 조희선, 2004, <이슬람사회의 여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권태환, 김두섭, 2013, <인구의 이해>, p70,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한나, 2012, <여성의 지위 변화와 완화되는 남아선호사상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선영, 2006,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논문.
- 이철희, 2013, <경제적 변화와 아들선호: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성과와 출생성비>, 응용경제 제15권 제1호.
- 이상화, 1998, <중국의 가부장제와 공사영역에 관한 고찰>, 여성학논집, 제14권 제1호.
- 임광식, 2012,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방향>, 보건복지프럼, 2005.5.
- 조은, <세계화 시대 한국 가부장제-모성, 부계혈통주의, 글로벌 자본의 경합>, 한국여성학회, 2005.
- 김한곤, <선별적 인공유산의 결정인자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인구학, 1997, 제20권 제1호.
- 김한곤, <여성의 지위와 출산력의 질적 연구>, 한국인국학회지, 1994, 제17권 제2호.
- 김한곤, <한국여성의 지위와 출산력: 1966-1985>, 한국사회학, 제25집 겨울호.
- 김한곤,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원인에 관한 질적 분석>, 사회과학연구, 1997 제7권제1호.
- 김두섭, <한국인구의 성비불균형 현상>, 한국사회학회지, 1994.
- 이삼식, <남아선호 의식과 행위간 일치성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 2001 제21권 제2호 p34-60.
- Christophe. Z. Guilmoto, 2009, The Sex Ratio Transition in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5(3), p. 519-549.
- Fawcett J. T. The value and cost of children: converging theory and research. In: The Economic and Social Support for High Fertility: Proceeding of the Conference held in Canberra, edited by L. T. Ruzicka. 1977, p91~114.
- Pedersen, F. A. Secular trends in human sex ratios Their influence on individual and family behavior. Human Nature, 1991, 271~291.
- 탕조운(湯兆云), 2008, <我國出生性別比問題研究>, 중국인실출판사.
- 이건신(李建新), 2009, <中國人口結構問題>, 사회과학문헌출판사.
- 성위(盛偉), 2013, <愛情“剩”世背后的危机-新中國人口出生性別比的變動趨勢, 原因, 后果和對策分析>, 노동보장세계.
- 마영통(馬瀛通), 2004, <重新認識中國人口出生性別比失調与低生育水平的代價問題>, 중국인구과학, 2004년 제1호.
- 탕조운(湯兆云), 2006, <我國出生人口性別比的地區差异及其政策選擇>, 하북대학학술지, 2006년 제2호.
- 주수걸(朱秀杰), 2010, <計劃生育政策与出生性別比關係的重新解讀-社會性別視角>, 서북인구, 2010년 제1호 31권.
- 주수걸(朱秀杰), 2010, <相對效用, 男孩偏好与生育性別選擇>, 남방인구, 2010년 제2호 제25권.
- 진우화(陳友華), 2007, <出生性別比偏高的治理對策研究-以廣東省爲例>, 인구와 경제, 2007년 제2호.
- 진우화(陳友華), 2006, <關於出生性別比的几个問題>, 중국인구과학, 2006년 제1호.
- 구양정(歐陽靜), 2006, <新疆出生人口性別比變化的相對穩定性研究>, 신장대학학술지, 2006년 3월 제2호.
- 공위강(龔爲綱), 오해룡(吳海龍), 2013, <農村男孩偏好的地區差异>, 화

- 중과학대학학술지, 2013년 제3호.
- 진우화(陳友華), 2011, <社會變遷与出生人口性別比拐点來臨>, 중국인구학학술지, 2011년 10월24일.
- 장이력(張二力), 2005, <從‘五普’地市數據看生育政策對出生性別比失調的若干認識問題>, 인구연구.
- 교소춘(喬曉春), 2004, <性別偏好、性別選擇与出生性別比>, 중국인구과학, 2004년 1호.
- 반금홍(潘金宏), 2007, <出生性別比失調對中國未來男性婚姻擠壓的影響>, 인구학간, 2007년 제2호.
- 왕금영(王金營), 2003, <2000年中國第五次人口普查漏報評估及年中人口估計>, 인구연구 2003(5).
- 유상(劉爽), 2009, <中國的出生性別比与性別偏好－現象、原因及后果>, 사회과학문헌출판사.
- 시용화(時蓉華), 2004, <社會心理學>, 절강교육출판사, 2004, p239~244
- 목광종(穆光宗), 진준걸(陳俊杰), 1996, <中國農民生育需求的層次結構>, 인구연구, 1996년 제2호.
- 황윤용(黃潤龍), 2012, <我國出生性別比偏高因素研究及其治理建議>, 인민출판사.
- 양국화(楊菊花), 송월평(宋月萍), 적진무(翟振武), 진위(陳衛) 등, 2009, <生育政策与出生性別比>, 사회과학문헌출판사.
- 고보창(顧宝昌), Krishna Roy, 1996, <中國大陸, 中國台灣省和韓國出生嬰兒性別比失調的比較分析>, 인구연구, 1996년 9월 제5호 제20권.
- 도파(陶濤), 2012, <農村婦女對子女的效用預期与其男孩偏好的關係>, 인구와경제, 2012년 제2호.
- 성여남(盛亦男), 2012, <男孩偏好的家族制度影響研究>, 남방인구, 2012년 제4호 제27권.
- 웅봉수(熊鳳水), 2007, <壓力從衆視角下的農民生男偏好>, 남방인구, 2007년 제2호 제22권.
- 진삼림(陳森林), 주연(朱娟) 2013, <農村居民生育意愿中男孩偏好的矛盾選

- 擇>, 적봉학원학보, 2013년 3월 제3호 제34권.
- 루입(鹿立), 최천거(崔天去), 2008, <男孩偏好社會性別文化拐点解析>, 중화여자학원산동분원학보, 2008, 총제83호.
- 양여언(梁如彦), 주검(周劍), 2013, <農民工生育意愿研究綜述>, 회해공학원학보, 2013년 12월 제24호 제11권.
- 자근영(慈勤英), 전우걸(田雨杰), 2004, <農村獨女戶男孩偏好轉化研究>, 남방인구, 2004년 제1호 제19권.
- 석인병(石人炳), 웅파(熊波), 2011, <流動經歷對農民男孩偏好的影響>, 인구와경제, 2011년 제4호.
- 고옥림(顧玉林), 2004, <農村城市化進程對女孩家庭地位的影響>, 당산학권학보, 2004년 제4호.
- 판귀옥(潘貴玉) 주편, 2003, <婚育觀念通論>, 중국인구출판사.
- 서결순(徐杰舜), 1999, <客家人的形成及人文特征>, 광서민족연구, 제55호.
- 풍소천(風笑天), 2006, <第一代獨生子女婚后居住方式：一項 1 2 城市的調查分析>, 인구연구, 2006년 9월 제 30권 제5호.
- 풍소천(風笑天), 2006, <從“依賴養老”到“獨立養老”>, 하북학간, 2006년 5월 제26권 제3호.
- 이발(李勃), 2008, <“80后”青年婚戀選擇特点及影響因素分析>, 산동성청젯관리간부학원학보, 2008년 11월 제 6호.

<Abstract>

# Research on the Variation of the Sex Ratio at Birth in the Society of Contemporary China

---Focus on the One-Child Generation's  
Changing Idea of the Utility Value of Child on  
the Family

CHEN SHANSHAN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re are many debates and concerns about the reasons, results, and necessity of the imbalance of the sex ratio at birth in China. While as to the future trend of the sex ratio of birth, there are quite few related researches. Since 2000, the rising tendency of the sex ratio at birth has stopped, and this is mainly related to the phenomenon that the one-child generation born in the 1980s gradually go into the adulthood. So in this research, based on the theory of the utility value of child on the family, I am going to take a look at how will the transition in structure of family influence the utility value of one child generation, and meanwhile I will take a close look at the

changes of people's living as well as thoughts in the process of China's modernization, and at the same time it can help us predict the future tendency of the sex ratio at birth in China.

In the first part, based on the leading research, I take a look at the reasons, future tendency of the sex ratio of birth and the superiority of son's utility value on traditional family. Among the three reasons of the imbalance of the sex ration at birth, the most important and basic one is the son preference. Son preference is related to the phenomenon that in traditional family, usually men has high utility value on carrying on the family line, raising the old's and family's economy. Besides these three utility values, in small family there also exist the value of child on the family(insurance value, emotional value and social evaluation value). In recent China, all kinds of the utility value of child on the family are going through some changes and I will talk about this point in the third part.

In the second part, I look at the features of the sex ratio at birth based on different periods and different areas. Since 2000, the tendency of sex ratio of birth has become gradual. Based at different areas, we can find that son preference is related to clan consciousness, religious faith, the level of urbanization, the ratio people who engage in the agricultural work and the education level of women, even 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not clear yet. Meanwhile, it seems among those complex relations, there are some structural factors leading to the weakening of the son preference. This kind of tendency is related to the appearance and the economic, cultural features of the one-child generation who born and grew up under the reform&opening up and the one-child policy. So, we may find and understand the changes of family structure as well as the son preference by looking at the features of these one-child

generation.

In the last part, based on the interview, I try to analysis the changes of the structure of family, the consciousness of family as well as the utility value of the one-child generation on the family. It turns out that usually one-child generation family is nuclear family or family with few children. And their family consciousness has weakened a lot, instead, individualism has grew a lot. In the process, men's high utility value on carrying on the family line, raising the old's and family's economy has weakened a lot as well. As a result, the factors of son preference got weakened gradually. Meanwhile, the change of the utility value of child on the family with few children held by the one-child generation also promoted the changes of the phenomenon of son preference. In a one-child family, since the dangerousness of losing the only child is very high, the insurance value of child on the family has reduced a lot. With the economic value of son on their parents reduced, the emotional value of daughter on their parents increased relatively instead. At the same time, due to the reduced number of children, both the boys and girls have become very cherish to a family, as a result, gender differences in treatment also reduced. What's more, nowadays, instead of the responsibility of family succession, social evaluation on whether a child can carry on the family line is more than on whether the child himself is successful or not.

In conclusion, we can see that the changes of family structure and the corresponding changes of the utility value of child on the family hold by the one-child generation are the main factors related to the weakening of the phenomenon of son preference. Meanwhile, as the weakening of the phenomenon of son preference, which is the basic reason of the imbalance of the sex ratio of birth, we can predict that

i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on the process of easing this unbalanced phenomenon. However, we should also realize that since there still exists strong son preference in certain areas or certain groups, this kind of changes may not be achieved in a short period.

**Key Words:** the sex ratio of birth, son preference, one-child generation, the transition of family, the utility value of child

**Student Number:** 2012-23890